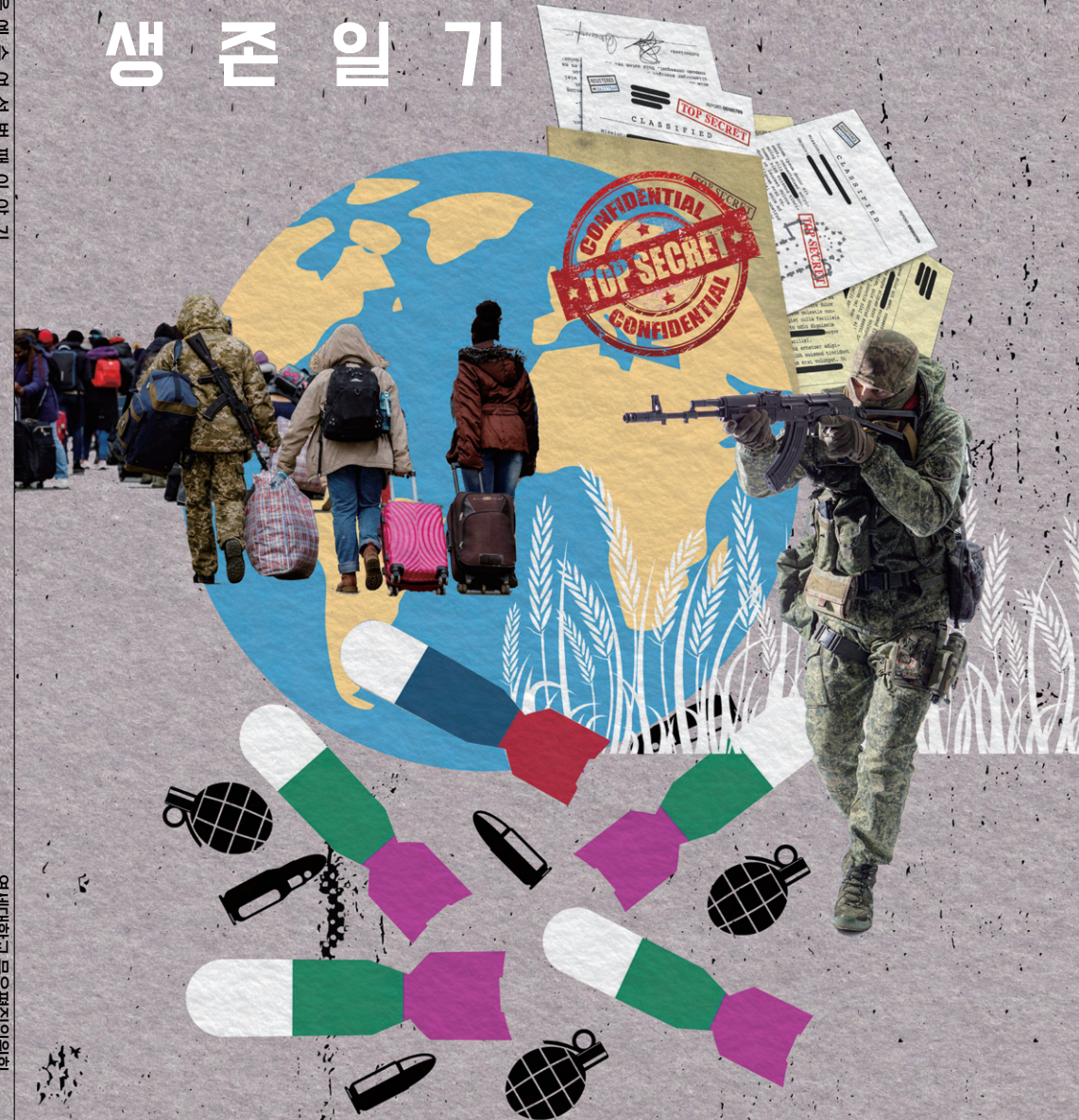


검열이  
완료  
되었습니다

# WAR 간 생전 일기



편집장	검은 (국문 20)
편집위원	루 (문인 17) 포슬 (영문 19) 단(丹) (독문 21) 야부 (국문 21)
수습편집위원	60 (문정 21) 봉화 (경영 21) 아자 (철학 22) 유연 (국문 22)
역은이	연세대학교 문우편집위원회
발행일	2022년 9월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외솔관 1층 문우방
디자인	이젠디엔피

# WAR 간 생존 일기



# 지친 계절의 날빛

단 (丹)

불길에 몸통을 부대던 나뭇잎, 날이 밝으면 떠오를까?  
 모기향이 그려놓은 실금을 따라 날개를 누덕누덕 꺾었어  
 도망가는 밤나방을 집어삼키고, 날이 새도록 타닥타닥  
 솟구치는 여름을 거쳐 삼아 머리를 대는, 가족이 바싹 마른 것들이 타닥타닥  
 우린 아직 등 안에 바람을 숨겼어. 다음 계절에는 허물을 벗도록 하자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 하나하나가 작고 흐르는 절망이야  
 왜 투명한 유리 밑에 낮을 내밀고는, 하염없이 믿으십니까? 묻지  
 어느 날, 북서쪽 창문이 기울어졌다. 엄마 소풍 다녀올게  
 여전히 건너편의 너머로 내가 늘어놓는다.  
 우리는 창문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다가가며 부딪히기 위하여  
 비 오는 밤이 숨겨주는 것은 머물러있는 나입니까, 다가오는 그들입니까? 답했지

언젠가 물뱀이 되는 거야  
 빗물을 기다리며 빙하의 표면을 핏기에는, 더운 김이 나오잖니  
 더운 것들은 엉겨 붙으니까, 여행 집에 빨랫비누를 챙기렴  
 산 것들을 뒤쫓다 보면, 사체들이 나룻배 위에서 흰 천에 싸여 떠밀려온다.  
 그것만으로 배부르기에는 이 북극곰은 비대했다. 유약한 것만 흘러가니까.

뒤돌아보지 않는 이들의 밑창을 들여다보았다.  
 당겨진 것인지, 밀려난 것인지,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하더라도  
 그리하여 나는 그 아이를 어두운 날에 버리고 왔다.  
 수많은 손이 회백에 거스러미를 새긴다.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이들만 뭉툭한 손끝을 가질 수 있다.  
 어른 노릇은 간편하다. 우산을 접는 연습만 한다면

형광등이 내 공책을 들여다본다.  
 회전하는 선풍기 머리가 벽을 밀고 들어가자, 나는 내 눈꺼풀 안을 들여다보려 노력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등이 나를 가려준다.  
 앞을 보며 울었다.  
 웅크리기에는 날이 너무 더웠고, 발목이 따끔거렸다.  
 맥박이 뛰자 천장도 쿵쿵거리며 조금,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마지막으로  
 농담이니  
 마저들 살아가세요.

## 편집장 서문

올해 봄, 유난히 다양한 꽃들이 함께 흐드러지게 피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냥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은 기후 변화 속에서 질서를 잃고 혼란스럽게 봉우리가 열렸었죠. 올해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올 꽃들처럼 아름답지는 않은,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움이 피어오른 것 같습니다. 국정의 변화 속에서, 계속 다투고 다치는 소식이 전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감염병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혹은 서서히 움직여 나갔고 생을 이어갔습니다.

이 글을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고민과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하나의 장으로서 이야기들의 서문을 쓰는 것이 처음이기도 하지만, 이번 문우 66호 <WAR 간 생존일기>에서 다루는 주제에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일상에서 비교적 안온하게 ‘살아있지만’, 누군가는 재난과 무기, 혹은 말의 날카로움에 베여 위험에 처하게 되고 폐허가 되어버린 자신의 세상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들은 주요 주제로 ‘전쟁’을 다루고 있지만, 어쩌면 ‘전쟁’을 그저 멀리서 지켜본다고 ‘믿는’ 우리가 담겨 있기도 하다고 감히 말해보려 합니다. 실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위치를 대신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미디어와 여러 번 분절된 감각으로 전쟁을 받아들이는 문우 편집위원들은 전쟁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여러 맥락과 삶을 글에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들은 모두의 ‘생존(生存)’이 만들어내고 엮인 일기라고 할 수 있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호에 실린 이야기들은 다양한 방식의 전쟁과 생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중 난민의 이야기로서, 내전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 집을 찾는 여정에 대해 문우 편집위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집을 찾는 수다회」가 이야기들의 서막을 엽니다. 뒤이어 포슬의 「모자이크: 우크라이나와 한국, 장애와 난민에 관한 소고(들)」은 장애와 난민의 교차점을 짚으면서 난민을 바라보는 경유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써 내려갑니다. 한편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는 여러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요, 유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국가 간 권력관계 아래에 논해지는 핵무기와 평화를, 단(丹)의 「멋지고 비싼 안보를 결재하시겠습니까」는 국가 안보의 상업화를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60, 검은, 봉화의 「전쟁은 무엇을 무너뜨리는가」는 전쟁과 기후 위기의 관계, 그리고 식량을 생산하는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불안과, 위협과, 위기가 우리를 찾아오면서 서로를 이어주던 실들이 끊어지려는 날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는 더 단단하게 서로를 연결 지을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마주하기도 하죠. 문우 66호의 글이 이 세상에 살아 있는, 혹은 살아남은 독자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우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 글의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지나, 편집장 검은 올림

목차

권두시

편집장 서문

메인기획 전쟁

아자/루/아부\_ 집을 찾는 수다회

포슬\_ 모자이크: 우크라이나와 한국, 장애와 난민에 관한 소고(들)

유연\_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단(丹)\_ 멋지고 비싼 안보를 결제하시겠습니까

60/봉화/검은\_ 전쟁은 무엇을 무너뜨리는가

문우의 눈

검은\_ 해피 엔딩이 아닐지라도

65호 독자모임

편집후기

#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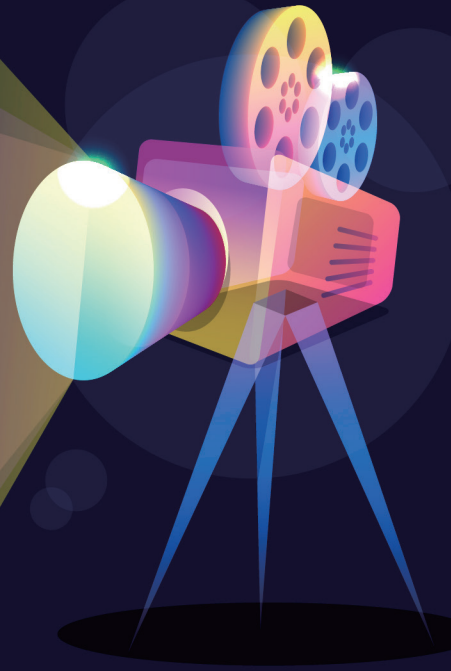
戰爭

메인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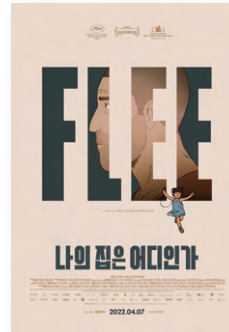


# 집을 찾는 수다회

수습편집위원 아자  
편집위원 야부, 루



일시 : 2022년 7월 21일  
장소 : 연세대학교 외솔관 문우방  
참석 : 단, 유연, 포슬, 루, 검은, 아자, 야부, H  
상영작 : 나의 집은 어디인가  
(요나스 포헤르 라스무센, 2021)



1984년, 아프가니스탄 카불. 원피스를 입고 동네를 활보하며, 장 클로드 반담에 폭 빠져 있는 한 소년, 아민이 있었다. 하지만 내전이 발발하며, 아민을 비롯한 가족들의 '집'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아민은 두 차례의 밀항 시도 끝에 덴마크에 다다르지만, 브로커가 쥐여준 거짓된 각본으로 살아가기에 지쳐만 간다. 영화는 이 시점에서 시작한다. 마치 심리상담을 하듯, 집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물어온 친구에게 아민은 "어디로 이동하지 않고, 머물러도 된다는 느낌"이라 답한다.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아민은 차마 되짚어 보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는다. 과연 아민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

\* 해당 글에는 영화에 대한 다량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영화를 먼저 감상하고 글을 읽어주세요. 영화는 현재(2022년 8월 기준) 왓챠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 선(善)의 평범성

단 / 영화에 힘겨운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만 생각해 보면 따스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국경까지 걸어가는 장면에서 특히 그랬어요.

유연 /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단 / 일반적인 재난영화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굴고, 심지어 서로 죽이려 들기까지 하는 장면이 자주 묘사되잖아요. 그런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각자 도생하지 않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함께 삶을 지탱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실제로 사람들은 인간다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유연 /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게, 그 장면(아민과 가족들이 러시아에서 국경까지 걸어가는 장면)에서 아민이 그날 밤 절대 맞이지 않는 사건이 둘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두 사건이 꼭 짝할 것이라고 예상

했다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하나는 한 할머니께서 지쳐 쓰러지셔서 다 같이 그 할머니를 이고 간 일, 나머지 하나는 동행하던 사람이 한 아이의 불빛 나는 신발로 밑출국 행렬을 들킬 수도 있다며 아이를 위협하자, 주인공의 형이 (신발에서 불빛이 나지 않도록) 아이를 목말 태워 다시 걸어간 일이었던 거예요. 둘 다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사건들이죠. 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픽션에서는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인간의 본연적 악이 드러난다고 묘사하지만, 오히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걸 알게 되었어요.

**포슬 /** 예컨대 어떤 봉쇄된 도시가 있다고 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한정된 자원을 독차지하기 위해 욕심부리고 서로 싸울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사마에게>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루 /** 앗, 저도 그거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2019. 사마에게(원제: For Sama), PBS 프런티어인, 채널 4 뉴스, ITN 프로덕션.

**포슬 /** 맞아요. 좋아요. 시리아 내전으로 알레포가 봉쇄된 후 그 안에 남겨 된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식량도 부족하고 매일 폭격이 쏟아져서 많은 사람이 죽는, 진짜 극한의 상황이죠. 그런데 감독의 남편이자

‘사마’의 아버지인 한 의사가 알레포의 폐건물에 임시로 병원을 세워 폭격으로 다친 사람들을 하나하나 치료해주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버스를 색칠할 수 있게 하는 등 나름의 즐거움을 함께 찾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 다큐에는 전쟁 속에서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로 돌봐주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재난 상황이 닥치면 무언가를 독점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내러티브가 흔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서로 나누고 의지하는 과정에서 진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비물질적인 자원이 생산된단 걸 느꼈어요.

## 각본 너머의 삶

**루 /** 아민이 브로커가 준 각본대로 공항에서 위증할 때, 이 각본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 가족들은 다 살아 있다는 걸 아는 데도 계속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야부 /** 가족이 모두 한순간에 죽고 혼자 남겨지는 그 각본이 충분히 자신의 현실이 될 수 있었고, 또 함께 골목을 뛰어다니거나 배구를 하며 놀던 어떤 친구들에게는 그게 지금 진짜 현실일 거라는 사실을 문득 체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지금 이곳에 다다랐다는 것을 확 실감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영 울지 않았을까요?

**야자 /** 가족이 모두 살아남은 건 맞지만, 아민 입장에서는 사실 죽은 것과 얼마나 다르게 느껴질까 싶어요. 가족 모두가 완전한 안전이 확보되는 곳에서 다 함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간간히 서로의 소식만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설령 나중에 가족이 모두 함께 살 수 있게 되어도, 이제 와서 사람들에게 가족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기도 쉽지 않을 테고요. 또 만약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가족과 연락이 끊기더라도 하면 이제 평생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채 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의 아민도 이런 수많은 생각에 비참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검은 /** 맞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에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자기 입으로 가족이 죽었다고 말한 순간부터 그 거짓말이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오게 될 거잖아요. 언어는 힘을 가지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연출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아민이 공항에서 각본대로 말을 하고 난 직

후, 수첩에 다리어로 자신이 했던 말들을 다 적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때 적었던 글자들이 살아나 아민을 구성하는 연출이 있었어요. 진실이 아닌 이야기가 진실과 다름없는 무게를 가지면서 앞으로 아민의 모습을 만들어간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슬프고 기억에 남았어요.

**포슬 /** 사회학에서 각본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잖아요. 사회가 곧 무대라는 메타포를 쓸 때요. 그렇게 각각의 개인이 사회라는 무대의 배우라고 했을 때, 각본은 사회라는 무대가 요구하는 규범이죠.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 즉 각본에 맞춰서 자신을 어떻게 적절히 상연하는가가 개개인의 과제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도 그 각본이라는 말이 쓰인 게 인상적이었어요. 아민의 각본은 난민이라는 역할로서의 각본이 되겠죠.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 너무나도 불쌍한, 그런 난민의 각본이 있고 그 각본에 자신의 서사를 끼워맞춰야만 난민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민이 그 각본을 이야기하면서 요구되는 어떤 슬픔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민은 계속 스스로를 억압하고 속이는 동시에 다른 이들을 의심하고 경계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울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런 긴장상태와 달리 각본을 말하던 그 순간에는 지금껏 반추할 수 없었던 쌓여온 감정들을 갑자기 표현해야만 했겠죠. 그래서 그때 지금까지 쏟아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터져버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표출한 감정은 이 다큐멘터리를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털어내면서 느낀 슬픔과는 다를 거예요. 진짜 자신의 서사를 어렸을 때부터 쪽 되짚어가면서, ‘이때 내가 이만큼 힘들었고 이런 걸 느꼈구나’를 찬찬히 떠올리는 과정. 그곳에서 나오는 눈물과 자신에게 요구되는 각본에 따라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만큼은 내가 슬퍼해야겠네’라고 생각해서 터져 나온 눈물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거기 말고도 국제 경찰들이 와서 난민들의 무릎을 꿇리고 난민 수용소로 끌고 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처럼 아민에게 흐릿하게만 남아 있는 기억들은 시각적으로도 되게 모호하게 흑백으로만 그려지더라고요. 삶의 조각조각들, 말로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잔상 같은 것들은 카메라 푸티지로 전달되었어요. 좀 이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민이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이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분은 기억이 잘 나고, 이걸 이제 기억이 없고...’ 이런 말들을 덧붙이잖아요. 초반에 ‘나 이제 다리어 못 읽는데’라고 민망해하는 장면 같은 거요. 그렇게 중간중간에 기억이 모호하다고 언급되는 것들은 실제로 아민에게 너무나 무섭고 큰 상처라서, 방어작용으로 그런 망각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큰 아픔을 겪으면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이 오히

려 흐려지기도 하니까요. ‘엄마, 아빠는 전부 죽었고, 누나는 납치당했고...’ 라는 거짓에 상처 받고, 그걸 고향의 언어인 다리어로 적혀두었는데, 지금의 아민은 그걸 잘 읽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는 읽을 수조차 없는 그 내용에 기반해서 현재 삶이 완전히 재구성된 거고... 이 거짓된 각본으로 구성된 삶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싶어서 옛날 애인에게 자신이 말해왔던 과거는 사실 꾸며낸 이야기라면서 겨우 진실을 털어놓기도 했는데, 사이가 나빠지자 ‘내가 너 경찰한테 고발할 거다’ 이런 식으로 도리어 협박을 받기도 하고...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억들을 직접 선별하잖아요. 그런데 아민의 경우에는 진짜 기억은 너무 아파서 잊어버렸거나 흐려졌고, 오히려 가짜 기억들이 자꾸 발목을 잡는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들이 난민으로서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 마주침의 격차

**루 /** 포슬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 장면 전에도 중요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아민이 밀입국하려고 작은 배에 탔는데 폭풍이 몰아쳐서 한참을 표류하게 되고, 그러다가 외국 유람선을 만나는 장면, 그것도 다들 인상적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2021. 나의 집은 어디인가(원제: Flee). 네온, 파티시펀트, 커존 아티미셀 아이



H / 그때의 유람선은 아민이 탄 작은 배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게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두 집단 간의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 높다란 유람선에 탄 사람들이 그들을 내려다보며 카메라를 드는 행위에서도요. 카메라는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렌즈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물건이잖아요. 난민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카메라를 거쳐 그들을 바라본다는 데서, 유람선 위 사람들이 얼마나 아무 문제의식 없이 타인의 불행한 삶을 관조하는지가 전해져서... 스스로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루 / 아민과 가족들은 다른 난민들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배에 그저 말없이 서 있기만 했죠. 그리고 그때를 굉장히 모욕적이고 부끄러웠던 순간으로 회상하잖아요. 그 장면이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앞에서 이야기 나는 것처럼 이 영화에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뒤처지는 이들을 기다리고 도와주는, 굉장히 따뜻한 부분들도 많죠. 그런데 사실 그건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끼리 연대한 것이잖아요. 반면 그 노르웨이 유람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눈앞의 난민들이 처한 상황을 전혀 경험해보지도 못했을뿐더러 그런 경험에 처하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겠죠. 대부분은 아예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들도 난민을 바로 눈앞에 마주친 순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무도 참담한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순간 자신들을 향해 절박하게 소리치는 난민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않거나 주지 못하는 채 그저 사진만 찍잖아요. 상황적 격차가 정말 크게 와닿았어요. 난민의 이주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저도 '난민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받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가 서로 마주치는 장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나고 자란 땅에서 쫓겨나 생존을 위해 다른 나라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하는 상황이 난민들에게는 모욕적이고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일 텐데. 그들이 느끼는 이 당연한 감정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지 못했고요. 그 장면에서의 사람들도 그런 고민의 과정 없이 갑자기 서로를 대면한 거겠죠? 그때 너무나 극명하게 보이는 격차, 그럼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 두 가지가 참 무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포슬 / 저도 그 장면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 장면에서 작은 배에 탄 난민들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 여기 있어' 하고 소리치다가 바다에 뛰어들기 시작하잖아요. '당신들의 연민이 없으면 나는 이 바다에 빠져서 죽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과격한 표출이 있어야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품위의 격차가 느껴졌어요. 사람은 지키고 싶은 일정 수준의 품위라는 게 있잖아요.

요. 근데 그 '품위'라는 것을 기꺼이 버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난민들, 반면에 그런 사람들과 마주하는 순간에도 품위에 손상을 입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 품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난민이라는 타인의 고통은 쉽게 외면해도 되고, 아니, 외면해야 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생각을 들게 했어요. 난민 문제가 아니어도 상대와 나의 조건적 격차가 극명히 느껴지는 마주침의 상황은 생각보다 쉽게 찾아오잖아요. 그때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은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타인이 자기 세계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요. 저는 그 '잊어버림'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존재가 망각이라는 위치로 밀려나는 것이...

야자 / 경찰이 오고 나서 유람선의 승객들은 다시 여가를 즐기러 갔겠죠. 반면 밀항선에 타 있던 사람들은 수용소로 가서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겪게 되고요. 이런 대조적 상황에서 누군가의 생명과 존엄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유희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품위에 관해 말씀해주신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유연 / '내가 만약에 그 유람선에 있었다면 뭔가 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보면, 저도 무력감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 배에 탄 사람이었다면, 이들을 전부 태우고 가자고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을 태운다고 해도, 그 후에는 어디로 어떻게 데려다줘야 하지? 어떻게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더라고요. 결국 선장은 국제 경찰을 부르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했죠. 그렇게 경찰이 난민들을 실어 가고 나면 승객들도 마음을 불편하게 한 그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으니, 더 이상 자기 책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거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난민들은 부끄러운 모습까지 보여가며 자신의 생존을 호소해야 하는데, 그때 누가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지 혼란스럽더라고요.

포슬 / 이 영화를 보며 또 스스로의 위치가 체감된 순간이 있어요. 누나들이 밀입국하는 에피소드요. 컨테이너에 사람들이 뻥뻥하게 들어차 있는데, 사방에 다른 컨테이너가 있어서 모두 꼼짝달싹 못 하고, 그렇게 갇힌 채로 밀입국이 이루어지잖아요. 브로커는 밀입국을 시키긴 한 거니까 자기는 할 말 없다고 하겠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비인간적이었잖아요.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에피소드를 보는 순간에도 제가 '그래서 누나들은 죽었어, 살았어?'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나들이 죽는 건 아니네.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사실 전혀 다행인 게 아닌데도요. 누나들에게는

도착해서 만난 오빠한테조차 아무 말 못 하고 계속 울기만 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말이에요. 난민의 서사에서 그 과정이 어땠든 간에 여정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래서 죽었어, 살았어?'라는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싶고요. 그런 극한 상황을 겪은 사람에게도 죽었는지 살았는지의 잣대를 들이밀며 연민 받을 만하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게, 전혀 다행인 일이 아닌데도 감히 다행이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게, 제가 그의 이야기를 관망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증거 같았어요. 그게 너무 불안하고 무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 교차되는 정체성

포슬 / 저는 아민이 가족들에게 커밍아웃하던 장면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루 / 저도 그 부분 제일 좋아해요.

포슬 / 너무 따스잖아요. 커밍아웃했더니 돈 주면서 게이클럽에서 신나게 놀다 오래.

유연 / 솔직히 형이 '내가 여자를 몰라서 그래'하면서 성매매 업소에 데려갈 줄 알았어요.

야부 / 그니까, 그니까.

루 / 저도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그랬어요. 오늘도 그 장면에서 다들 긴장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가족이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이 워낙 파란만장하다 보니 가족 구성원 중 누가 동성을 좋아한다는 사실 정도는 뭐 별거 아닐 수 있겠다 싶었어요.

단 / 살아있는데 뭐.

루 / 맞아요. 살아있으면 됐지. 건강하면 됐지. 딱 그거 아닐까. 그리고 저는 형이 그즈음 괜히 여자친구 있냐고 자꾸 물어보던 것도, 아민에 대해서 이미 눈치챘지만 부정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었

어요. 형은 동성애라는 개념 자체에 익숙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그럼에도 동성애자들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막연히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아민의 성 지향성을 이미 눈치챘는데도 괜히, '그래도 아민이 이성애자였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놓지 못하고 아민의 정상성을 확인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그런 불안감을 안고 있으면서도, 실제 커밍아웃의 상황이 왔을 때는 아민에게 좋은 대답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오래 고민해왔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대처를 보여줬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야자 / 아민의 고향에는 원래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가 따로 없었다잖아요. 그런 데서 나고 자란 가족들 입장에서 더더욱 동성애자가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장면에서 아민의 커밍아웃 때문에 힘든 세월을 함께 겪어온 가족이 일순간 붕괴될 거라 예상했고요.

유연 / 저도요.

야자 / 지금까지 아민에게는 가족만이 유일한 기둥이었는데 이제 그 가족마저 사라지면 아민이 어떤 걸 붙잡고 살아야 할까 하면서 걱정이 됐어요.

검은 / 저는 그 장면도 기억에 남아요. 아민이 동성애를 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동시에 약물로 치료 가능할 거라고도 믿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때 아민은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을 자신의 성 지향성보다 우선시한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모두가 걱정했던 것처럼 본인이 커밍아웃하는 순간 가족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결국 아민은 두 가지 다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민에게도 전쟁이라는 손쓸 수 없이 거대한 사회적 상황과는 별개로 성 지향성과 관련된 사소하고 사적인 취향들이 있었잖아요. 어린 시절 벽에 붙여놓았던 장 클로드 반담 포스터 같은 거요. 전쟁 상황을 계속 함께해 온 가족도 물론 자신에게 큰 의미지만, 그런 개인적 취향들이 아민 스스로가 '난민'이라는 집합적 정체성에 매몰되지 않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굳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포슬 / 이건 섹슈얼리티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아민에게 금목걸이를 준 형 에피소드에서요, 그 형과 함께 망명하면서 있었던 일이나 당시에 자신이 느낀 감정은 상세히 기억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 형의 이름

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아민은 그 형을 이름을 통해서가 아니라 금목걸이라는 물건을 매개로 기억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아민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걸 감각할 수 있었던 수단이 아빠의 유품인 손목시계였던 것 같거든요. 그 손목시계를 러시아 경찰에게 빼앗기던 순간이 아마 아민에게는 아버지를 진짜 잃어버린 순간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민과 그 형이 트럭 집간에 나란히 누워 잠을 청할 때 형의 손에 자신의 손을 슬쩍 갖다 대지만 형이 다시 손을 떼는 장면도 생각나요. 잠깐 나온 장면이라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야자 / 기억나요.

포슬 / 그 거절의 기억이 아민에게 상처일 수도 있겠지만 첫사랑의 기억이기도 한데, 금목걸이라는 물건이 그 기억의 증거로 작용하다 보니 그 순간이 잊히지 않고 계속 좋게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손목시계나 형이 준 금목걸이 같은 여러 물건이 관련된 기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하는 매개이자, 그 기억이 진짜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 이렇게 아민의 증언을 토대로 한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한 거겠죠.

## 나의 집은 어디인가

루 / 집의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각자가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집이라 느끼는지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곤 하는데, 사실 각자가 인식하는 그 ‘집’의 개념은 결코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야자 / 맞아요.

루 / 저부터 얘기해도 되나요? 저는 기숙사가 딸린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때 친구들이 공부하기 싫고 힘들어서 말하는 ‘집에 가고 싶다’에서 ‘집’이 어디일까 싶더라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잠을 자는 기숙사, 아니면 원가족이 사는 공간. 이 중 어디를 집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저에게는 ‘집’이랄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가족과의 갈등이 심해서 본가를 집이라고 느끼지 못했

고, 심지어 몸이 많이 아파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빙빙 맴돌거나 학교에 계속 붙어있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집’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파트너와 함께 살거든요. 이제는 집에 대해 가지는 권한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자유로워졌어요. 마음대로 꾸밀 수도 있고 마음대로 더럽힐 수도 있고, 사소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져요. 지금의 집을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데에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저는 집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정말로 내 한 몸을 누일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같이 지낼 사람과 같이 지낼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지 같은 요소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민도 난민 생활을 하며 겪은 상실들을 계속 상처와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생활이 안정된 이후에도 계속 사람을 믿지 못하고요. 그런데도 중간에 ‘난 일, 공부, 남자가 있을 때 공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언급한 것과는 달리 결국에는 자신을 믿어주는 파트너에게 마음을 연다는 점이 좋았어요. 아민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데에도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해준 가족들에 대한 부채감이 크게 작용했는데, 그런 감정도 사실 이미 지나간 과거에서 비롯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과거의 것을 본인 안에서 잘 갈무리하고 현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된 거죠. 비록 아민은 오랜 시간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한곳에 정착할 수 없었지만 결국은 몸을 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는 진짜 집을 찾았어요. 이렇게 극한 상황을 경험하고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도 결국 진짜 집을 찾았다는 이 점이 제가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에요.

검은 / 제게 온전한 ‘집’은 집 전체에서도 저에게 주어진 방 하나뿐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 누가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일부러 학교에 더 오래 남아 있곤 했어요. 거기엔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물론 있었지만 집에 항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고, 그들이 내 공간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으면서 침범해 들어오는 게 싫어서...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심지어 집이라고 느끼는 제 방 안에서도 외부에서 들려오는 가족 구성원, 특히 아빠의 행동과 말을 전부 차단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침범을 차단할 수 있는 곳, 외부로부터 온전히 보호 받을 수 있는 곳을 집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 다들 '집'을 생각하면 공간적인 무언가를 떠올리잖아요.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공간, 내가 속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제가 느끼는 '집'의 감각들은 순간적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평소에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문밖이나 벽 너머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면 '내가 저들을 듣는 것처럼 저들도 나를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생겨요. 저의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목격당할지도 모른다는 감각이 굉장히 싫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갈 때조차 누군가가 지켜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기도 해요. 이렇게 타인의 접촉이 없는 순간을 집이라고 느껴서 그렇지 저는 더욱 어떤 공간에 가만히 머물러있지 않기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집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거죠. 아민도 덴마크에 정착한 이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남들에게 들릴까 봐 항상 두려워하잖아요. 의도치 않은 때에 타인에게 자신이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목격 당할까 봐 긴장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자 / 저한테는 회귀의 가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도 결국에는 돌고 돌아 다시 집' 같은 느낌으로... 계속 거기 있었고 언제라도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느낌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안정된 기분이 들지 않아요. 떠돌아다니는 것 같고.

유연 / 루님이 본연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곳, 나의 선택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곳, 이게 진짜 집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대학 기숙사에 들어와서 그런 걸 처음 겪었어요. 저는 내내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특히 아버지가 가정의 화목을 엄청 중시하시고 삶의 이유를 오로지 자식들에게서만 찾으시는 타입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화목함이 깨지지 않는 걸 너무 중시한 나머지,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항상 저녁 식사는 가족이 함께해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늘 다 같이 외식을 해야 해요. 누구 생일에는 꼭 고기 먹고 케이크 먹고 노래방에 가야하고. 여름방학에는 꼭 가족여행을 가야하고 거기서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앨범으로 만들어야 하고... 송도 기숙사에서 지내는 요즘도 저는 주말마다 본가에 가요. 단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은 주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말에는 꼭 밥을 같이 먹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20년을 살아왔어요. 다행히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라 이거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지만, 송도 기숙사라는 집은 확실히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고요. 저는 룸메이트랑 되게 잘 맞았거든요. 운이 좋았어요. 우연히 만난 관계인데도 오래 함께한 것처럼 편안한 느낌도 들고요. 그렇게 저는 기숙사에 와서야 처음으로 저의 모든 시간을 자유롭게 꾸릴 수 있었던

거예요. 편안하게 느끼는 가족 외의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같이 사는 사람이 나한테 간섭하지 않고... 생각보다 '자유'가 집이라는 인식에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 기억 위에서 삶은 계속된다

단 / 공항에서 아민이 애인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캐스퍼(아민의 애인)의 얼굴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두려웠어요. 저 사람이 갑자기 낯설고 그 둘의 관계가 영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았어요. 다들 아민과 아민의 파트너가 서로 대화를 잘 끝내고 집에 간 장면을 감동적이라고 느끼신 것 같은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는 이전의 시간을 온전히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이 아민에게는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이미 전부 알고 이해해주던 원가족과는 다르게, 새롭게 만나 형성되는 가족과는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공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하고서야 비로소 애인에게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2021. 나의 집은 어디인가(원제: Flee), 네온, 파티시펀트, 커존 아티미셀 아이

단 /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잘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큰 시련을 만났을 때, 다른 밝은 기억들이 그 슬픈 기억들에 압도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는 부정적

인 감정에 가려져 있던 즐거운 기억들이 새삼 귀중했다는 걸 깨닫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울림을 주지 못한 기억이었을지라도 시간이 흘러 다시 생각해 봤을 때는 자신에게 힘을 주는 강력한 기억으로 새롭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민도 나중에 덴마크에 정착하고 나서 도망 다니기만 했던 유년 시절을 회상할 때, 무섭고 상처받던 순간 속에서도 그때 들었던 경쾌한 음악이나 가벼운 내용의 멕시코 드라마,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서로 도왔던 따뜻한 순간들이나 자신이 좋아했던 형과 같이 수많은 긍정적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잖아요.

**야자 /** 치마 입고 동네를 뛰어다니거나 누나 머리를 빗어주면서 놀았던 기억도 있고요.

**단 /** 맞아요. 분명 아민에게는 부정적인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들도 꽤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작은 행복의 순간들이 계속 남아 자기도 모른 채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자 /** 아민은 새로 구한 집에 나 있는 좁은 길을 보고 자신이 과거를 잊고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도 해요. 분명 아민은 자신의 삶을 열심히 꾸려나가면서도 문득문득 그 길을 보며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이 막 떠오르겠죠. 그렇지만 아민은 그때마다 어떻게든 그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을 잘 승화시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앞으로의 미래도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암담하리라는 생각에 주저앉아버리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아민이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집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그 순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포슬 /** 아까도 잠깐 언급한 다큐멘터리 〈사마에게〉 이야기를 또 하고 싶어요. 감독을 비롯해서, 알레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알레포라는 공간이 자신들의 집이기 때문에 이곳을 떠난다는 걸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알레포에 아무리 폭격이 내려도, 원래 살던 집이 형체조차 찾아볼 수가 없이 무너져도, 그냥 계속 알레포에 머물러요. 그 사람들이 알레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기억 때문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기억들이요. 그 좋은 기억들이 그 장소랑 관계가 없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말았던 냄새를 잠깐 다시 맡으면 갑자기 그 시절의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향수에 젖는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을 텐데요. 그거랑 비슷하게, 그들은 알레포라는 공간에 각인된 모든 기억과 감정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받

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실향이라는 경험에서 가장 아픈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민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형이랑 같이 연 날리고 누나의 머리도 빗겨주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뒤로 하고 그곳을 떠나야 했다는 게 아민의 유년기에 엄청난 상처였을 것 같아요. 실향이라는 경험이 아민이 다시 찾은 집과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 있을지에 관해서 이야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유연 /** 이 중에 영화 〈애프터 양〉 보신 분 계신가요? 〈애프터 양〉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소재가 기억이거든요. 그 영화는 고장난 안드로이드를 고치기 위해 안드로이드의 기억을 열어보는 거로 시작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기억을 기록한 영상은 딱 3초씩만 저장되어 있어요. 아이폰에 있는 라이브 포토랑 비슷하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인간인 우리 삶의 사건들도, 사실 전부 맞닿아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기보다는 라이브 포토처럼 단편적으로 기억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민이 과거에 겪은 피난 같은 사건들도 꼭 연속적이라기보다는 날개로 존재하고, 그것들을 매끄럽게 다듬은 게 바로 이 영화인 거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엔 먼 과거의 기억일수록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야말로 오히려 미래에 존재할 일들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끝난 직후에는 한 번 일어난 비극적인 삶의 사건은 기억이 흐려지더라도 알게 모르게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비판적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수다회를 진행하면서 다른 생각이 조금씩 들었어요. 현재도 언젠간 과거가 되겠죠? 그럼 이 현재의 일도 더 과거의 일과 함께 ‘과거’라는 이름으로 합쳐지고 그다음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게 기억이 많이 쌓일수록 과거의 강렬한 사건과 감정들도 조금씩 더 중화되지 않을까요? 과거가 되어버린 현재의 노력이 결국 그다음의 나에게 다시 큰 영향을 미칠 테고, 과거에 일어난 슬픈 일들의 비중은 점점 작아질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야자 /** 공부 부족 멘트 중에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는 남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님께서 이 문장과는 반대로 생각하신대요. 반대로 ‘결과가 사라지고 감정이 남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은영 박사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성적을 기억할 수 있냐면서, 성적은 결국 나중에 가면 쉽게 잊히지만 당시에 내가 열심히 했었다는 그 경험과 감정은 분명 기억이 날 거라고 하셨거든요. 방금 유연님이 과거의 상처나 실수가 현재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슬프다고 얘기해주셨는데, 저도 동의해요. 그렇지만 아민은 상처를 안고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꾸려나가잖아요. 저는

아민의 삶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면 아민의 삶이 계속되면서 이러한 노력이 함께 과거의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상처와 트라우마로 작용하기만 했던 피난 다니고 숨어 지내던 시간도 미래에 마냥 부정적으로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포슬 / 아민이 덴마크에 오게 되기까지 있었던 과거의 여정과, 파트너와 함께 살 집을 찾는 현재의 여정이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런 배치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와 현재, 이 두 가지의 집 찾는 과정이 조금 다른 형태이면서도 공통적으로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한 배치가 아닐까 싶어요. 과거의 집 찾기에는 무력함이 전반에 깔려 있었잖아요. 자의적으로 집을 선택할 수 없고 전쟁과 같은 외부적인 상황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집을 떠돌아다니니까요. 현재의 집 찾기에서도 초반에는 아민이 충분히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죠. 집을 찾아가는 과정을 마냥 편하게 여기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분명히 그 둘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왜 현재의 집 찾기는 아민에게 비교적 편안할 수 있었는가를 고민하다가 결말 부분에서 나름의 답을 얻었어요. 아민이 포스닥에 합격한 걸 파트너에게 말하지 않고 계속 숨기다가 그 사실을 직전에야 알게 된 캐스퍼(파트너)와 다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민이 감독의 집에 하룻밤 묵게 되는 거고요. 이후 아민이 포스닥을 끝내고 귀국할 때 캐스퍼가 공항으로 그를 마중 나오는데, 아민은 잠시 고민하지만 결국 그에게 가서 안겨요. 그런 화해의 과정에서 둘 사이에서 많은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졌을 거고, 결국 둘이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결혼도 하고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아자 / 저도요!

포슬 /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공간도 결코 완벽하지 않고, 언제든 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민은 이제 이 뺄 거임이 생길 때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걸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마지막 대사가 특히 좋았어요. 아민이 '이 공간을 우리 걸로 채울 수 있을까?'라고 말한 거요.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공간은 내가 마음대로 꾸며나갈 수 있는 곳이란 사실을 확실히 하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집이란 안전하고 친밀하면서도 동시에 나에게 힘과 믿음을 주는 곳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나의 노력으로 이곳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2021. 나의 집은 어디인가(원제: Flee), 네온, 파티시먼트, 커존 아티미셜 아이

# 모자이크 : 우크라이나와 한국, 장애와 난민에 관한 소고(들)

편집위원  
포슬

## 글쓰이의 변

한 소설의 문장을 들고 와 보았습니다(아마 이 글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서로를 매우 상세히 관찰하게 된다”<sup>1</sup>. 이 짧은 인용구는 결코 닿을 수 없었던 존재들이 맞닿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곳’은 포로수용소, 모두가 벌거벗은 생명으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 이전에는 언제나 말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위치’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나’를 뒤덮는 외피 없이, 서로가 서로를 단지 생명으로 마주하는 순간에서야 말은 연결과 공감을 가능케 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말을 전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울해 들어 부쩍, 한국 바깥에서 누군가가 죽거나 다쳤다는 소식,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였다는 소식,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학살하고 있다는 소식이 더 빈번하게 들려옵니다(이러한 일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며, 한국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일 또한 아니지만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언제나 뉴스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뉴스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제기사는 직접 취재 대신 외신 기사를 번역하여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기자의 사명에 대한 비판입니다. 겹겹의 가공을 거친 텍스트는 항상 ‘있는 그대로’를 마음짚하여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여럿의 펜을 거친 기사는 언제나 부분적인 진실만을 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질문 또한 던질 수 있습니다. 같은 별 위에서도 ‘그들’과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너무나 먼 거리를 둔 채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활자와 이미지를 통해 ‘그들’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그들’이 만나기 위한 일종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매개의 유무가 아닌, 매개의 종류에 관한 것이 됩니다. 바다 너머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는 ‘어떤’ 렌즈를 통해 ‘그들’을 만나야 할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1 에르펜베크·에니, 『모든 저녁이 저물 때』, 배수아 옮김, 한길사, 2018, 105.

가장 먼 곳의 이야기를 해보았다면 가장 가까운 곳의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너’와 ‘내’가 어디까지 ‘우리’로 묶일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걷는 길과 같은 길을 걷고, 제가 보는 풍경들을 똑같이 보고 살리라 생각합니다(적어도 같은 학교에 있는 동안은 말이지요). 하지만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감염병의 세가 악화하여 우리가 대면할 수 있게 된다 해도, ‘내’가 ‘너’를 온전히 만나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체성의 언어를 빌리지 않더라도, ‘내’가 ‘너’의 삶의 이야기를 모두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상, 그 어떤 이야기를 듣든 그 이야기를 진짜로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면대면으로 만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말은 일종의 ‘렌즈’를 투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고민 위에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변명을 들고 와 봤습니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은 각각의 맥락이 켜켜이 쌓여 있어, 지구 건너편에서 쓰이고 있는 하나의 글 속에서 온전히 풀어내기 어렵습니다. 직접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지어 다른 언어로, 대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장 가까운 곳의 이야기 중에서도 ‘내’가 말할 수 없는 혹은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의 이야기에 ‘내’가 불가분으로 연루되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이야기는)내가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며,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또한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글은 여러 타인의 입을 빌린 일인칭으로 쓰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삼인칭의 글, 무언가 혹은 누군가의 ‘존재’를 전달하는(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선언하는) 글, 그럼으로써 완결되고 깔끔하게 봉합될 수 있는 글, 그리고 그러한 글을 쓰는 행위는 자칫 제가 사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단언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누구’로부터 왔고, ‘왜’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되었는지를 최대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글을 중차 지점이 아닌 경유지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독자분들께서 직접 이 글이 참고하고 있는 글과 영상들을 살펴보고, 이 글이 미처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은 직접 찾아오셔서 덧붙여 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제가 남의 글을 빌려 쓴 하나의 기사보다, 여러 사람이 대면하는 가운데 주고받는 발화에서 그나마 조금은 ‘있는 그대로’와 가까운 말이 가능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 기사나 보고서 등을 인용할 때, 원문의 인명은 통일성을 위해 이니셜로 치환하였습니다.

‘체념 증후군(Resignation Syndrome)’은 스웨덴의 난민 가정 아이들에게서 처음 관찰되었으며, 근래에는 호주의 난민 수용소에서 종종 발견되는 희소병입니다. 저는 <체념 증후군의 기록(Life Overtakes Me)>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이 질병을 처음 접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체념 증후군을 겪고 있는 세 명의 아동이 등장합니다. 이 세 아이가 보이는 증상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점차 자각에 무감해지며, 심한 경우 길게는 몇 년까지 이어지는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전문가들은 본국을 떠나며 얻은 정신적 외상과 언제 강제 송환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러한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인 유병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질환을 겪는 존재는 대부분 아동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긴 혼수상태에 빠진 아이들의 상태를 ‘백설 공주’ 혹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의 동화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유는 이들이 짊어져야 했던 끔찍한 상황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상황을 겪고도 가족 중 아이에게서 유독 체념 증후군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 합니다(이는 질병에 동화적 비유가 동원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는 같은 사건들을 헤쳐나갔다고 여겨지는 이들 가족이, 실제로 ‘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각자가 경험한 사건이 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다가갔고, 이들 중 유독 충격에 취약하게 반응한 존재가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지요. 질환의 발생이 곧바로 더 많은 고통, 더 강한 피해자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난과 박해에 있어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어린이들에게 이 특징적인 질환이 종종 발견된다는 점은 이들의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필요가 어른들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체념 증후군의 기록>에서 살펴본 ‘가족’이라는 범주를 ‘난민’ 전체로 넓혀보겠습니다. 뉴스나 저널에 종종 등장하는 ‘난민 문제’, 혹은 ‘난민 이슈’와 같은 말들은 ‘난민’이라는 집단의 테두리가 배타적이라는, 다른 의제들과 분리되는 ‘난민’만의 고유한 문제 지점들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물론 ‘난민’, 그리고 이들이 경험한 박탈은 분명 난민이 아닌 이들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소위 ‘난민 집단’으로 통칭하는 인구 안에도 하나하나 호명하기 벅찬 수많은 개인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일차적으로는 난민들이 국가의 경제 바깥으로 밀려나는 이유가 매우 다양한 까닭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난민의 형상은 아프가니스탄 혹은 우크라이나의 사례와 같이, 전쟁이나 내전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여성, 성소수자, 장애, 소수민족 혹은 종교 등 정체성에 따른 박해 또한 난민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차적으로 같은 이유로 ‘무국적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본국을

2 Pressly, Linda. "Resignation Syndrome: Sweden's Mystery Illness." BBC News, 26 Oct. 2017, <https://www.bbc.com/news/magazine-41748485>.



탈출하고, 수용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다양한 필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난민’이라는 집단은 수많은 정체성과의 교차지점에서만 온전하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몇몇의 사례와 글들을 훑어가며 소수자 난민, 특히 장애를 지닌 난민의 이야기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소수자 난민은 매우 다양한 정체성을 가로지르는 분류이지만, 그중에서도 장애를 지닌 난민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아마도 많은 경우 이들의 이야기가 난민 정체성의 핵심에 놓여있는 (말 그대로의, 그리고 은유적인) ‘이동 불/가능성’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장애를 지닌 난민’의 지위를 이야기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중 두 국가에 집중하여 난민과 장애인의 교차지점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논의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난민을 이야기함에 있어, ‘소수자 난민’의 논의가 왜 필연적인지에 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거창하게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글 자체가 장애를 지닌 난민을 이미지이자 활자로 취급하는 것은 아닐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 글은 미결된 상태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소수자 난민들, 난민과 장애라는 지위, 저와 당신의 위치 등등 여러 가지의 무언가를 연결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연결 불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이 적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혹은 보강해야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는 독자분들께서 읽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난민이라는 인구에는 언제나 소수자 난민이 존재하며, 다양한 소수자 난민 중에서도 ‘장애 난민’이 존재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동 중과 정착 과정에서 장애 난민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위 ‘정상적인 몸’과는 다소 다른 것들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닌 필요는 늘 생존이라는 최저선에 밀려납니다. 이는 많은 경우 난민을 지원하는 측에서 한정된 자원을 극한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분배할 때 생존에 대한 요구를 최전방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욕구의 재배열, 혹은 욕구의 ‘정치’는 상상을 제한합니다. 여기서 소수자 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난민화된 삶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정상적인’ 몸에 대한 상상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입니다. 상상의 편중은 곧 인식의 편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상 신체’의 생계유지가 곧 난민 지원의 핵심인 것으로 말이지요. (몸의) 정상성에 대한 각본이 난민의 각본과 포개어지는 이 현장에서 소수자 난민의 상황은 절대로 그가 놓인 사회의 맥락과 분리하여 파악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자의 난민이 겪는 어려움은 수용국뿐 아니라 본국의 사회적, 제도적인,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판이하고 나아가 소수자 난민의 경우 해당 사회가 어떻게 소수자성을 배제하는지에 따라 그 곤경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로서 그리스 소재의 난민들을 다룬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연구자인 C는 “유감스럽게도, 장애는 누구

에게도 우선순위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Unfortunately, disability was not prioritized by anyone).”라고 이야기합니다. C를 포함한 휴먼 라이츠 워치 연구원들에 따르면, “특히 숨길 수 있는 장애를 가진 경우 이들은 접수와 신원확인 단계에서 간과되(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been overlooked by the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Service, particularly those who have hidden disabilities)”며, 이는 곧 장애 난민의 집계와 지원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코디네이터인 B는 그 원인을 당국의 난민 심사 절차 속에서 파악합니다. “접수 시스템은 심사 과정에서 신체, 혹은 시각장애와 같이 ‘명백한’ 장애를 이르는 장애에 대한 상당히 좁은 정의를 채택합니다. 정신장애는 따로 범주화되어 있으며 충분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지요. 지적장애는 파악되지조차 못합니다(the reception system takes a very narrow definition of disability in their screening – typically very over disability such as physical or visual impairment. Mental disability is categorized separately and under – identified. Intellectual disability isn’t even screened)”<sup>3</sup>.

가장 최근에 대중의 이목을 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장애 난민의 사례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영국으로 향한 우크라이나 난민의 경우 영국의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인 생체 인증 절차가 지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BBC의 한 기사는 삼 주가 넘는 시간 동안 동생의 영국행 비자를 기다려야 했던 영국 소재 우크라이나인 F의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F의 동생은 뇌성마비로 인한 전신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기사는 이 점 때문에 생체인증여권의 발급이 지연된 것이 늦은 비자 발급의 원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sup>4</sup>. 또 하나의 사례에서, 영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 K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조카가 복잡한 생체인증 시스템으로 인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중간 지점인 프랑스에 불안정하게 거류해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K의 조카에게 이러한 불안정성이 더욱 가혹했던 까닭은 충분한 신분증명 서류가 구

3 Morgan, Jules. “Disability – a Neglected Issue in Greece’s Refugee Camps.” The Lancet, vol.389, 2017, p.896.  
 4 개인 생체정보가 담긴 칩이 내장된 여권. 개인정보 도용과 테러 방지를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1998년 최초로 도입되어 2019년 중반에는 150개국에서 도입하였다. 영국의 경우, 빠른 입국을 위해 생체인증여권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What are Biometric Passports?” PostOffice, <https://www.postoffice.co.uk/identity/biometric-passports>. “Over 60+ Countries Now Issuing ePassports – FindBiometrics.” FindBiometrics, 30 December 2008, <https://web.archive.org/web/20170406111611/http://findbiometrics.com/over-60-countries-now-issuing-epassports-2/>.  
 5 Miskin, Stephanie. “Disabled People ‘Forgotten Victims in Ukraine’.” BBC News, 9 May 2022, <https://www.bbc.com/news/uk-england-stoke-staffordshire-61174854>.

비되지 못한 탓에 프랑스에서도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sup>6,7</sup>.

한편, 장애 난민들은 지위를 인정받은 후에도 다양한 어려움과 맞닥뜨립니다.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장애 난민 캠프 현황을 취재한 한 보고서에서는 난민 심사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수용 이후 지원의 주체가 맞닥뜨리는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캠프가 의존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재정 부족,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거지가 안정적으로 공급 및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지원 또한 미진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비추어, “장애를 지닌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의 필요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 (the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lder persons are not sufficiently being taken into account in the response)”으며, “장애와 포괄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로힝야 난민 캠프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minimum standards of disability and inclusion criteria were not being met in Rohingya displacement camps)”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캠프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취약 계층 난민의 필요는 한없이 뒤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sup>8</sup>.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2015년, 파키스탄 출신 난민 아동 M의 사례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M은 중증뇌병변장애가 있어, 등학교를 비롯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활동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은 난민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자를 명시하는 법안 제32조의 2에 ‘난민’이 추가되었고 M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안과는 별개의 복지부 지침에 따라 M을 비롯한 ‘비국민’은 여전히 ‘사업 제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sup>9</sup>.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캠프

6 Manning, Lucy and Sarah Bell. “Ukraine: My Disabled Nephew has a Home in UK – but is Stuck in Paris.” BBC News, 25 Apr. 2022, <https://www.bbc.com/news/uk-61178099>.

7 위에서 언급된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 장애를 지닌 난민은 이동과 난민 심사의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동을 하는 데 불편을 겪는 장애인인 타국으로의 피란은 물론이거니와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격으로부터 대피할 경우에도 다양한 곤란을 겪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난민 심사의 사례는 심사관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방증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인 이동, 노동, 적절한 교육 등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로부터 탈출하여 망명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난민심사장에서 장애인의 이러한 삶의 불가능성은 박해(persecution)가 아닌 단순 차별(discrimination)으로 간주되기 일쑤이다. 나아가, 정신 장애 및 지적장애를 지닌 난민의 경우,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증명(본국을 탈출한 이유가 되는, ‘공포’의 피력)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보호자가 당사자의 이해를 대리하기도 한다.

Crock, Mary et al. “Where Disability and Displacement Intersect: Asylum Seekers and Refugees with Disabil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vol. 24, no. 4, 2013, 743-750.

8 Landry, Michel D. “Disability and the Rohingya Displacement Crisis: A Humanitarian Priorit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vol. 99, 2018, p.2122

9 최한별, 「장애인 등록 가능한 ‘난민’ 아동 미르가 활동지원 못 받는 이유」, 비마이너, 2018.01.05.,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50>.

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지만, M 또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자국민’ 위주로 설정된 한국 복지 우선 순위에서 미끄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이 수많은 사례 중, 두 국가의 경우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경우입니다. 우크라이나 내 장애 난민(여기서는 ‘난민’을 국가 경계를 넘는 데 ‘성공’한 사람들뿐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살 곳을 잃은, 혹은 삶의 조건이 더욱 악화된 사람들을 통칭하기 위해 사용하겠습니다)의 사례는 피란을 시도한 경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디서빌리티 라이츠 인터내셔널(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은 우크라이나의 4개 보육시설과 장애 시설을 방문하여 그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DRI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의 참상이 가장 큰 동부 아동 시설의 어린이들은 대부분 피난을 갈 수 있었지만, 장애의 정도가 달하거나 장애가 없는 아동만이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의 인근 국가로 이동할 수 있었고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국내, 그중에서도 서부 시설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은 동부에 남기도 했습니다. 해당 시설에 방문한 DRI는 시설 내 인력부족으로 인해 이들 아동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sup>10, 11</sup>.

이 지면에서 DRI의 조사관들이 목격한 장면을 일일이 묘사하는 것은 글의 맥락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문제의 요지를 비끼는 서술일 터입니다. 오히려, 제가 쓰고 있는 이 글과 보고서가 지니는 두 가지의 접점, 그리고 난민과 장애의 교차성을 사유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초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DRI의 보고서는 난민이 될 수 있음과 없음, 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난민화를 야기하는 사건으로부터 피할 수 있음과 없음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서 장애와 나이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그려냅니다. 보고서가 이야기하듯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많은 지원을 요하는 장애를 지니느냐 등의 요소는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음/없음을 나누는 강력한 기준

10 Rosenthal, Eric et al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Left Behind in the War: Dangers Fac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Ukraine’s Orphanages.” 5 May 2022, p.1.

11 위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해당 시설의 현황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묘사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언어이다. 그러나 반대로, 해당 시설들의 실태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글에서는 DRI의 보고서에서 조사 결과를 요약하는 방식을 인용하고자 한다. “DRI 조사관들은 묶여있는 아이들, 전혀 움직이지 않는 채로 침대에 놓여있는 아이들, 어두컴컴하고 환기가 되지 않는 방에 배정된 아이들을 발견하였다.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기에, 이 방들은 똥오줌 냄새로 가득하다. 아이들은 감정적 방치의 결과 몸을 앞뒤로 흔들거나 자해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곳의 직원들은 (물리적) 제제 외에는 이러한 행동에 대응할 자원과 지식이 전무하다. (DRI investigators observed children tied down, left in beds in near total inactivity, and held in dark, poorly ventilated rooms that are so understaffed that they are enveloped in smells of urine and feces. Children rock back and forth or self-abuse as a result of years of emotional neglect. Staff have no resources or knowledge about how to respond to this behavior other than to restrain them for much of the day)”. Rosenthal, Eric et al. 위의 글.

으로 작동하였습니다. 둘째로 DRI 조사관들의 기술은 ‘시설화’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난민과 장애의 위치가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sup>12</sup> 시설화란 “지배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관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와 분리하여 권리와 자원을 차단함으로써 ‘불능화/무력화’된 존재로 만들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제한하여 주체성을 상실시키는 것”

12 우크라이나의 시설화 실태는 역사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맥락 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 내에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아동이 시설에 위탁되어 있었다. 구소련 시절, 우크라이나의 위탁 시스템은 국가에 아동을 맡기는 것을 최대한 용이하게 하였는데(러시아 제국은 18세기부터 아동에 대한 시설 돌봄을 시작하였으나,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의 기획은 훨씬 포괄적이었다 - 보육원은 새로운 개인의 산실이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인민의 보육장치로 여겨졌다(However, the Russian project, inspired by the ideas of the Enlightenment, was more far-reaching: the founding homes were envisioned as incubators of an entirely new type of individual and as the breeding ground for people who would be especially useful to their nation)”). 이렇듯, 러시아 제국 내에서 아동의 시설화는 사회 주변부의 아동들(소수민족, 빈곤층 등을 ‘국민’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볼셰비키 혁명을 거쳐 세워진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시설화를 더욱 정력하였는데, 대표적으로 1917년 10월 혁명 이후, 볼셰비키 파는 모든 아동은 “국가의 아이(state children)”로서, 통합된 양육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부터 1926년에 이르기까지 입양은 불법이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고, 아동 시설을 고도화하려는 전략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끝을 맺게 된다. 1991년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으로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 또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기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Dobrova-Krol, Nataliya A. and Marinus H. van IJzendoorn. “Institutional Care in Ukraine: Historical Underpinnings and Developmental Consequences.” *Child Maltreatment in Residential Care*, edited by Adrian V. Rus et al., Springer Cham, 2017, pp. 219-224.), 이렇듯 유럽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아이들이 시설화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제도적 기억이 일조했으리라 여겨진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내에는 특히 장애를 지닌 아동의 경우 가족이나 지역사회보다 시설에서 더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만연해 있었다(Clegg, Ruth. “Ukraine Orphanages: Children Tied Up and Men in Cots.” *BBC News*, 27 Jul. 2022, <https://www.bbc.com/news/disability-62226636>).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2021년 변화의 조짐을 보이게 된다. 우크라이나의 아동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유엔에서 우크라이나로 특별 조사위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망을 구축 및 파견한 것이다. 이들은 시설의 인권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를 지닌 아동과 성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우크라이나의 시설화 정책을 비판하였다(Rosenthal, Eric et al. 위의 글). 유엔의 권고는 이후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던 우크라이나의 시설 개선 정책(National Strategy for Reforming the System of Institutional Care and Upbringing of Children for 2017-2026)과 합쳐져, 2026년까지 아동돌봄시설을 전면 개편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아동 탈시설을 추진하는 기획으로 이어졌다(Kryvachuk, Liudmyla. “Transformation of Social Services in Ukraine: the Deinstitutionalization and Reform of the Institutional Care System for Children.” *Labor et Educatio*, 2018, 144.). 그러나 여기서도 장애를 지닌 아동은 배제되었다. 2022년까지 수천 명의 아동이 가족형 시설(family-style group home)로 이관되는 와중에도 장애를 지닌 아동은 계속해서 이전 시설에 머물렀던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였다(Clegg, Ruth. 위의 기사.). 러시아 침공 후 정책의 중단과 함께 장애를 지닌 아동은 DRI 보고서에서 드러나듯 이전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의 아동 시설화 실태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 보고서를 참고. The Illusion of Protection: An Analytical Report Based on the Findings of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Child Protection System in Ukraine. Hope and Homes for Children, 2017, <https://gdc.unicef.org/resource/analysis-child-protection-system-ukraine,Pamphlet>.

으로 정의됩니다<sup>13</sup>. DRI가 기록하는 장애인들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이유 외에도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를 박탈당했다는 점<sup>14</sup>, 그럼으로써 ‘불능화/무력화’된 존재로서의 삶을 강요받는다는 점에서 명백히 시설화된 존재들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침공의 흔적이 그리 자주,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설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애와 난민이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접점이 드러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국가는 바로 한국입니다. 작년 11월, 일명 ‘새우튀기’라 불리는 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외국인 수용시설 내에서 자행되어왔던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들이 대중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sup>15</sup>. 해당 사건에서 보호소 내 HIV 감염인이 외부와 전혀 소통할 수 없는 상태로 감금된 점, 각종 질병을 앓는 입소자들이 적절한 의료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점 등이 문제로 부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단 사안의 핵심에 놓여 있던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조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사안에는 한국의 난민이 맞닥뜨리는 구금과 감시의 체제, 그리고 더 거시적인 시설화의 논리와 맞닿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2019년, 장애여성공감은 ‘IL과 젠더 포럼’을 개최하여 탈시설 운동의 확장적 가능성을 논의

- 13 조미경, 「장애인 탈시설 운동에서 이뤄질 ‘불구의 정치’ 간 연대를 기대하며, 『시설사회』, eBook, 장애여성공감 엮음, 와온, 2021, 109.
- 14 DRI의 한 위원은 다음의 사례를 기록한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A입니다. 반가워요.” 영어를 어디서 배웠는지 묻자, 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TV를 보면서 배웁니다. 미국으로 오고 싶어요.” 우크라이나어 몇 줄을 배우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본 조사위원은 당혹스럽다. 이 젊은 여성, ‘어린이 시설’에서 자랐으며 직업 훈련 외의 고등교육은 받지 못한 이 여성은 영어 문구들을 독학했고 그것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나 A가 십대 시절 약간의 직업훈련을 받았다 한들, 그는 그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가 속한 시설의 다른 아동과 성인들을 위해 채소를 재배하는 일만을 해야 한다. 그 자신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 자신만의 집에 살고, 그 스스로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Hello! My name is A. Welcome.” When asked how she learned English she reports, “I learn English from watching TV. I want to come to America.” This reviewer is perplexed because she has been struggling to learn a few phrases of the Ukrainian language (without success). And yet this young woman, who was raised in a “baby home” and received no higher than a vocational education, is teaching herself English phrases and knows how to use them correctly. In fact, while A. has received some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when in her teen years, she is now made to work in the fields raising vegetables for herself and the other children and adults who live in her institution, even though she would like to pursue a different career and live in her own home and be able to make her own decisions”) (Rosenthal, Eric et al. 위의 글, 7-8.)
- 15 외국인보호소는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마땅히 거주할 장소가 없거나, 거주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항하는 곳이다. 해당 사안에서 특히나 문제가 된 지점은,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 독방에 가두는 조치인 ‘특별계호’가 (조치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지만)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었던 점, 게다가 ‘특별계호’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포송줄, 수갑, 머리보호장비 등을 무단으로 씌워 고문과 다름 없는 폭력을 가한 점이였다. 허민지, 「구금자 고문한 화성외국인보호소 ... “차라리 교도소가 낫다”», 비마이너, 2021.09.29.,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26>.

한 바 있습니다. 이 포럼의 일환으로 연재된 한 글에서는 ‘난민의 시설화’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고은지 활동가는 2010년, 인천 영종도 일대에 출입국외국인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치 장애의 탈시설이 말 그대로의 시설에서 벗어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기반을 가꾸는 것을 의미하듯, 난민의 시설화 또한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입국외국인센터라는 ‘시설’이 입소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제도를 통해 그들의 “삶에 대한 통제”를 박탈한다면, 퇴소 후에는 다른 종류의 ‘시설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예멘 난민에 대해 한국의 정부와 사회가 보인 태도가 이를 방증합니다.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가려내겠다는 시민사회의 결의하에, 예멘 난민들은 일상적인 감시하에 놓였고, 심지어는 “가급적 집 밖을 나서지 않”아야 한다는 훈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은지 활동가에 따르면 난민은 이렇듯 “정치 공간이 구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외부, 즉 내부에 존재하는 외부”로서 국민국가 정체성을 확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됩니다<sup>16</sup>. 마찬가지로 김연주 활동가는 자유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외국인보호소의 시설로서의 면모와 함께, 출입국 동향조사라는 명목으로 외국인들의 일상을 낱알이 감시하는 제도의 폭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sup>17</sup>. 이 두 글 모두 종래 장애 운동의 의제로 여겨져 왔던 탈시설과 난민 인권 운동의 교차지점에 대한 고민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

일라이 클레어는 『망명과 자긍심』 2판 서문에서 장애 활동가와 교도소 인권 활동가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 공동체와 쟁점을 가로지르며 이어지는 대화 - 폭력, 격리, 강제 불임 시술, 생체 실험, 시설의 잔인함과 무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고통스럽겠지만 지극히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대화는 장애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장애인을 가두는 서로 맞물린 권력 구조를 폭로할 것이다”<sup>18</sup>. 이 책에서 특히나 흥미로운 것은 클레어가 ‘집’이라는 은유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책의 한 장에서 클레어는 “귀어 몸”을 지닌 자신이 정치적 귀어 공동체를 찾았을 때의 감정을 “집을 다시 찾은 것”<sup>19</sup>에 비견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몸이 진정한 ‘집’으로서 감각되기 위한 조건들을 고찰합니다.

일라이 클레어의 글에서 우리는 다양한 억압이 교차할 수 있는 ‘다중 쟁점 정치’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억압, 귀어에 대한 억압, 난민에 대한 억압이 긴밀히 공모하고 있다

16 고은지, 「난민의 피로 자신의 피난처를 찾는 대한민국」, 비마이너, 2019.05.29.,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73>.

17 김연주, 「난민은 어떻게 시설에 갇히는가」, 비마이너, 2019.09.18., <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33>.

18 클레어·일라이, 『망명과 자긍심』, 전혜은, 제이 옮김, 현실문화, 2020, 30-31.

19 클레어·일라이, 위의 책, 56.

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모호하며, 어쩌면 조금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정치의 장 안에서 오고 가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이 어떤 매개를 통과하여 오고 가는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공감의 통화(通貨)”<sup>20</sup>로서의 이야기(내러티브)를 말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지와 더불어 ‘누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말하는가가 중요할 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미리 설정해 놓은 궤도에 따라 여러 이야기를 짜맞추는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말하기가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마무리를 얻었다는 사실 자체가, 당초 시도했던 연결의 불가능성을 방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의 교환, 그리고 그를 통한 공감은 안정성이 아닌 불안정성 속에서 예측 가능성이 아닌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만 정말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맥락에서 이 글이 한편으로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으로 읽힌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 여러 텍스트를 경유하여 -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읽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 임옥희, 『팬데믹 패닉 시대, 페미-스토리노믹스』, 도서출판 여이연, 2021., pp. 11-12.

#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습편집위원  
유연

**0.**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약 6개월이 흘렀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의 삶은 본래의 모습을 잃고 황폐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2일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도시와 마을을 3,600개 이상이 러시아에게 점령당했으며, 수백 곳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6월 기준, 민간인 사상자를 3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였다.

이 궤멸적인 침공은 여전히 증식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외려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8월 24일을 기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쟁의 장기화가 선언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일까?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밝힌 침공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위협으로부터 러시아가 불안전함을 느꼈기 때문”이었다.<sup>1</sup> 여기서의 “위협”은 우크라이나가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뜻한다.

**1.** 나토는 1949년 북대서양 조약을 통해 창설된 서방 국가들의 군사 동맹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고자 한 까닭은 나토의 설립 목적에서부터 잘 드러난다. 초기 나토는 소련에 대한 견제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는 현재 나토의 역할인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에 대한 견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나토 헌장 제5조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 중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그러한 공격이 있을 경우 각 회원국은 공격받는

1 폴 커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 푸틴이 원하는 바는?” BBC 코리아, 2019.02.25. <https://www.bbc.com/korean/60521326>.

국가에 대해 원조한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나토의 군사적 상호 원조 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의 완전한 독립과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다.

우크라이나는 30년 전,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자마자 나토에 가입하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나 당시 나토 측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거절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 선언을 했을 때 소련의 핵무기 다수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남겨져 있었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것을 그대로 흡수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우크라이나는 176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40대의 전략폭격기, 500여 기의 크루즈미사일형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sup>2</sup>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한순간에 핵무기 보유국 3위의 자리로 올라섰다. 즉, 나토의 우크라이나 가입 거절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위협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sup>3</sup>에 대한 요구인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있어 나토의 이러한 요구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소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핵무기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안전 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주요한 협상 카드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운용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 않았으며, 핵무기를 안전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만한 기술적 자본도 부족했다. 두 번째로 체르노빌 원전 참사를 지켜본 국민들이 핵에 대해 가지는 불안감이 증폭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초대 대통령 레오니드 크라프추크는 핵무기를 가진 신생 국가라는 위치가 외교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2.**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할 때 가장 중요시한 것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서방 국가를 통한 러시아로부터의 안전 보장, 두 번째는 충분한 재정적·자원적 보상이었다. 핵확산방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 NPT)에 가입하여 공식적으로 핵을 포기하기 전,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국제 사회로부터 확약

2 홍아리나,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과정 (1991-2012)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7, 18p.  
3 여기서 비핵화(denuclearization)란 국가의 핵능력을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의 핵능력이란 핵무기에 필요한 군사적 시설과 물질, 기술 등을 뜻한다. 비핵화라는 단어는 탈핵, 또는 반핵이라는 단어와 자주 혼용해서 쓰이곤 한다. 그러나 탈핵/반핵(post-nuclear/anti-nuclear)은 원자력발전소를 통한 발전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며, 동시에 에너지 과소 비적인 사회구조의 변화와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추구하는 사회 운동의 한 갈래를 뜻하는 말이다. 그렇기에 비핵과 탈핵/반핵이라는 말은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에서는 ‘비핵’이라는 단어만 사용한다.

받기를 원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는 많은 문서가 오가고 협약이 맺어졌는데, 그중 주목할 것은 1994년 1월 러시아·미국·우크라이나 간의 3자 협정과 1994년 12월의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이다.

먼저 3자 협정을 살펴보자. 3자 협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우크라이나의 NPT 가입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확약하며 영국·러시아·미국 등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 우크라이나에 비핵화를 위한 충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는 3자 협정에서 전자의 주 내용인 안전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러시아·영국·미국의 3개 핵보유국이 서명한 이 각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4번 조항과 6번 조항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4번: ‘미합중국, 러시아 연방,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비확산조약의 비핵무기국가로서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는 침략행위의 피해국이 되거나 침략 위협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즉각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를 모색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6번: ‘미합중국, 러시아 연방,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은 이러한 약속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협의할 것이다.’

요컨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사용한 침략을 받을 시에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모색하지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침략을 당했을 시에는 미국·영국·러시아 3국이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는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약속했지만, 이는 실제로는 별다른 효력이 없었다. 우선 각서는 조약이나 협약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서명한 국가가 각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러시아가 이번 침공에서 그러했듯, 침략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4번 조항은 별다른 구속력이 없다. 6번 조항 또한 단순히 국가 간의 ‘협의’만을 명시했기에 이에 근거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각서의 유효성에 대한 우려는 이번 침공이 있기 전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도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2018년 우크라이나의 국

방위원장인 투르치노프는 “핵무기 포기가 우리의 실수였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각서의 중요값만도 못하다”라고 한탄했다.<sup>4</sup> 그리고 예상할 수 있게도,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에도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는 효력이 없었다. 클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즉각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 제 6항에 근거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이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3.** 우크라이나는 안전 보장을 대가로 핵을 포기한, 모범적인 비핵/비확산국의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핵포기 모델 연구와 북한 비핵화 전략을 위한 연구에서 비핵화의 범례로 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가장 자주 언급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수많은 논문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안전 보장과 경제적 지원)이 국제 사회의 요구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 ‘모범’은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이 붙여준 딱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사회에서 비핵화는 인류 공동체가 함께 달성해야 할 이상적인 가치로 여겨진다. 올 8월의 제10차 NPT회의에서는 수많은 연설과 선언문을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의 일환으로 비핵화를 장려하였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 사회가 비핵화를 다루는 방식이 지극히 불공평하고 비핵화의 대가로 약속된 내용이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왜곡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1968년 발효된 핵확산방지조약 NPT의 조항이 핵무기 비보유국들에게 상대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현실을 잘 드러낸다. NPT는 5개 국가(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중국)를 핵무기국(Nuclear Weapon States)으로 규정하여 핵 보유를 허용하였고, 나머지 가입국들을 핵무기 비보유국(Non-Nuclear Weapon States)으로 규정했다.

NPT 조항에서 드러난 핵무기국과 핵무기 비보유국의 의무사항을 살펴보자. 먼저 핵무기국의 의무는 첫째, 핵무기를 어느 수령자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것, 둘째,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나 관련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원조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핵무기 비보유국의 의무는 첫째, 핵무기를 어떤 양도자에게도 양도받지 않을 것, 둘째,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 셋째, 핵 보유를 이행하고 있는지 검증과 안전 조치를 받을 것이다.<sup>5</sup> 이때 셋째 의무에서의 ‘안전 조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핵

4 유원중, “[특파원 리포트] 우크라이나 사태, ‘부다페스트 각서’ 후지 조각?...북한·이란 비핵화는” KBS 뉴스, 2022.02.2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01658>.

5 핵없는세상,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 (국문/영문).” 참여연대, 2009.05.08., <https://www.peoplepower21.org/Peace/580170>.

무기 비보유국의 핵물질·핵시설 보유 여부를 사찰하고 만약 조약 위반이 적발되었을 시에는 합당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핵무기를 전파하지 않을 것에만 그치는 핵무기국의 의무와는 달리 핵무기 비보유국은 불시에 이루어지는 국가 기관 사찰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핵무기국과 핵무기 비보유국의 의무를 비교해 보았을 때 NPT는 핵비확산의 의무를 핵무기 비보유국에만 과다하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비할 수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핵무기 비보유국들이 해당 조약의 불평등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NPT에 가입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국제 사회의 압력이다. 현재 190여 개의 국가가 핵무기국과 주변 국가들을 의식하여, 혹은 그 압력을 무시하지 못하고 비보유국으로 가입한 상황이다.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북한이나 처음부터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이란은 지속적으로 국제 사회로부터 지탄받으며 NPT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유일한 NPT 탈퇴국으로, 탈퇴 직후부터 현재까지도 NPT 대열에 재합류할 것을 촉구받았다. 최근의 8월 26일 제10차 NPT평가회의에서도 북한은 어김없이 언급되었다. 공개된 최종 선언문에 따르면 “회의는 북한이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조속히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규정을 적용하며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sup>6)</sup>

그러나 예외는 존재한다. 이스라엘은 1960년부터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비공식적 핵무기국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로부터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지탄을 받지 않는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친미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40년 넘게 이스라엘의 핵무기에 관해 비밀주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미국 정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전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타국과 같은 투명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이란의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IAEA는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간과하면서 이란에는 노골적인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sup>7)</sup>

**4.** 이렇듯 NPT는 세계적 비핵화와 핵비확산을 목적으로 발효되었으나 이는 명목상의 가치일 뿐 실질적으로는 강대국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보유가 자국의 안보에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요구로 핵무기를 포기한 후 NPT에 핵무기 비보유국 자격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이는 곧 핵무기국인 러시아로부터 침략으로 이어졌다. 비핵화를 단행할 때 받은 안전 보장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사태를 지켜본 국가들은 핵무기의 필요성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북한 학자인 란코프 교수는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넘겨준 국가가 바로 그 핵무기를 넘겨받은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북한은 이라크와 리비아에 이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더욱 확실한 교훈을 얻은 셈”이라고 말했다. NPT체제는 비핵화에 대한 실효성을 잃었다. 비핵화는 강대국을 위한 허울 좋은 명목일 뿐이며,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비핵을 추구하기는커녕 핵무기국 자리로 올라서기만을 바란다.

핵이 인류 멸망을 부를 수 있는 공멸의 무기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핵의 위험성을 예방하고자 만든 약속은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허물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누구도 ‘핵무기로부터의 안전’을 바랄 수 없는 지금, 강대국의 모순적인 행보로 오염되고 있는 ‘비핵’과 ‘평화’라는 단어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재고해야 할 때이다.

6 박형주, “NPT 평가회의 최종선언문 초안 “북한 추가 핵실험 안돼…핵보유국 인정 불가”, VOA 코리아, 2022.8.24., <https://www.voakorea.com/a/6713592.html>.

7 이승민, “이란 “이스라엘 핵무기 보유 묵인하는 IAEA, 이중잣대”, 연합뉴스, 2022.06.04.,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4035600111>.

# 멋지고 비싼 안보를 결제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수차례의 전쟁을 치러온 국가이다. 인근 국가뿐 아니라 국가 내부에서도 거듭 전쟁이 발생해왔고, 아직도 분단 체제가 유지되고 있을 만큼 전쟁과 맞닿아 있다. 게다가 이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국민의 생활 속에 굳건히 자리 잡은 징병제, 민방위 경보훈련 등은 국가의 전쟁이 결국 일반 국민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언제라도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쟁을 역사 속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일종의 오락, 유희거리나 콘텐츠 소재 정도의 가벼운 무게감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벼움은 전쟁의 서사를 지배하고 있는 '군대'의 영웅화에 기반하고 있다. 군사력을 동반하는 행위인 전쟁은 국민들의 안보와 생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국민들은 이를 위협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이렇듯 전쟁의 공포에 둔감해진 우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외국의 전쟁이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서야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났음을 인식한다. 게다가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와 같이, 적국이 운용하는 군사력 그 자체에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자신과 같은 시민이 피 흘리고 쓰러지는 광경을 본 후에야, 충격을 받고 전쟁을 실감한다. 이처럼 '군대'라는, 전쟁의 일선에 서 있는 행위자는 전쟁이라는 사건에 연루된 '민간인'의 존재를 망각하도록 하고, 나아가 군대에 속해 있지 않은 '우리'가 언제든 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은폐한다. 그 때문에 국민들은 적국의 군사력과 시민들의 긴 피난 행렬,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의 생명이 모두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 안에 연루되어 있음을 쉽게 떠올리지 못한다.

전쟁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지 않는 한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진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 그리고 약자들이 겪는 전쟁의 참혹성은 미디어에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전쟁이 자신의 목전에 드리워졌을 때,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떠올리지 못한다. 또한 미디어에서는 전쟁 상황의 시나리오를 군인, 혹은 민간인 영웅에 국한하여 전개함으로써 재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국민이 지닌 전쟁의 이미지는 총을 들 수 없는 사람, 도망갈 수 없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용맹하게 적군을 쏘아 이기는 군사 영웅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군대의 이야기에 지나치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문

화 인식은 국민의 일상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다시금 전쟁과 전쟁을 둘러싼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2022년 3월 초, 전직 UDT 군인 '이근'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바로 자신이 속한 민간군사기업 '무사트'가 우크라이나 측의 의용병 요청에 응하여 우크라이나로 향한다는 내용이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출국을 엄격히 금하였으나, 이들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비공식적 절차로 출국하였다. 이에 외교부는 이들이 여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여론 역시 개인의 안전에 관한 우려와 더불어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악화를 이유로 이들의 행태를 질타하였다. 이근 대위의 행보에 관한 수많은 의견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지적은 이근의 참전이 순수한 국방지원보다는 일종의 마케팅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출국을 알리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자신이 협찬받은 가방 사진을 올리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본인들의 국방 사업체인 '무사트'를 홍보하고 인지도를 얻기 위한 용도로 사회적 규율을 무시하고 전쟁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27일,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대중들은 여전히 의용병 팀, 특히 그 리더격인 이근이 저지른 불법 행위와 사익을 위한 참전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충실하게 참여하였다는 증거와 인터뷰, 이들의 전공을 높이 사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응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상황은 역전되었다. 대중의 비판은 쉽게 사그라들었으며, 이근은 일부 팬들에 의해 참전 위인으로까지 격상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출국 이전과 참전 중, 그리고 귀국 후 이들의 행보를 면밀히 살펴며 그들의 행동, 그리고 여론의 변화를 가능케 한 거대한 흐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근의 우크라이나 불법 참전처럼 전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근과 같이 전쟁에 상업적인 이유로 참전한 이들이 쥐고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이 가진 무기가 유명인으로서의 인기만이 아님을 제대로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크라이나 출국은 이근이 지금까지 쌓아온 크고 작은 논란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계기였을 뿐이다. 대중은 유구하게 자신과 자신이 속한 기업의 '남성적'인 '강함', 그리고 그에 따른 안보 및 구호 능력을 과시하고, 상업적으로 홍보해온 그의 행위에 대해 불편함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이근의 행보는 전혀 이상한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근 개인의 삶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과 별개로, 그의 본질은 엄연히 집단 혹은 개인의 안전을 자본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금액을 흥정하는 사업가이기기에 이 점



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

안보를 판매하는 주체로서 이근의 정체성은 그의 직업에서부터 잘 드러난다. 이근이 운영하는 민간군사기업 '무사트'는 원래 정부의 공적 책임에 속하는 광범위한 군사 및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업체이다. '무사트'에 속한 프리랜서 용병들은 소비자가 제시한 금액에 맞춰 해당 서비스를 수행한다. '무사트'와 같은 민간군사기업은 그 등장부터 시장 논리에 크게 빛지고 있다.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며, 전 세계적으로 군대의 감축 흐름이 이어진 바 있다. 이때, 양질의 군사교육을 받은 군전문 인력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서 이근의 '무사트'와 같은 민간군사기업이 확장된 것이다. 군인들은 이제 국가에 소속되어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안보를 책임지는 대신, 자금을 통해 국가에 필적하는 안보 행위를 펼칠 수 있는 자본가의 도구로써 군사력을 발휘한다.

이근 대위의 경우가 증명하듯, 자본에 따라 작동하는 안보는 비단 국경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우리의 일상 생활에 깊이 자리 잡혔다. 국가는 자신의 경찰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국민들에게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독려한다. 1900년대 거리에 동행금지령이 내려지고 경찰 순찰을 하였던 것과 달리, 캡스와 KT텔레캅, 아파트 경비원이 돈을 받고 주민을 지키다. 병원 앰블런스뿐만 아니라 사설 업체의 앰블런스가 환자를 이송하며,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안전한 삶, 혹은 성공적인 구호를 바라는 이들이 사설 경호원과 사설 구조대를 채용한다. 오랫동안 자본주의의 법칙 속에서 살아온 국민들은 돈을 주고 구매한 자신들의 안전이 절대적인 권리를 지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논리로 서로의 신뢰를 구매하는 환경은 합리적이고 유용해 보이지만, 사람의 생명이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저울 위에 놓일 때, 합리를 상실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대부분의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 그리고 이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적절한 가격이 책정된다. 자본주의는 각자가 자신의 자원을 손에 단단하게 쥐고 흥정할 수 있어 야지만 양측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결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상업화된 안보가 거래하는 재화는 자본이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취급하는 것은 자본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 구매자는 흥정과 선택의 여지 없이 안보를 제공하는 이의 요구를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 안보에 있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구매자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상업화된 안보'의 논리가 지닌 허구성이다. 자본에 의해 가감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안보에 달린 생명이기 때문에, 안보는 절대로 자본주의의 논리에 치환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적 안보가 무능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개인은 상업화된 안보에 의지하고 있으며, 상업화된 안보를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업화된 안보'의 위험성은 다양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4년, 4.16 세월호 참사는 민간 안보에만 의지하던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판매자'인 민간 구조사들과 '구매자'인 정부가 구조 비용을 논의하며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 진행 과정을 지켜본 국민

들은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민간 구조사들, 그리고 이를 조율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는 정부의 모습에 큰 불안을 느꼈다. 훗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적 책임의 주체인 정부가 또다시 시장에서 책임을 질 '대상'을 구할 것이라는 불안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안전을 거래 당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팽배해졌다. 세월호 참사는 '상업화된 안보'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정부 또한 무력한 구매자에 불과하며, '구매해야만 하는 안보'의 희생자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위험을 지시한 사건이기도 했다.

안보의 사설화, 다시 말해 안보 주체의 변화는 곧 '모두를 위한 안보'를 불가능의 영역으로 밀어 넣는다. 이에 따라오는 것은 곧 안보 서비스가 주거지역, 직장 등 개인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안보 영역의 계층화'이다. 과거 모두는 국가가 공평하게 모든 개인의 안위가 보호받겠다고 믿었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의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국민은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민간 안보 시장의 '구매자'로서 자본을 쥐어야지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안전을 구매할 자본이 없는 사람, 혹은 예견하지 못한, '안전을 구매할 겨를이 없던' 사고를 당한 사람 등등은 각종 위험 앞에서 무력할 뿐이다.

민간 안보에 지나치게 의지한 구호 활동이 가져온 참사를 역력히 보여준 세월호 참사는, 우크라이나에 의용병으로 출국한 이근과 모종의 관련을 지닌다. 민간 잠수부들의 대표로서, 고급 장비와 위험수당을 이유로 높은 가격을 부른 것이 바로 이근이기 때문이다. 당시 답답함과 초조함 속에서 현장을 지켜본 이들은 이근의 우크라이나 출국 소식을 접하고, 자본주의의 파편이 된 안보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리하여 의용병 참전을 공익을 위한 공공주체의 재능기부가 아닌, 민간 군사 기업의 홍보이자 영향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 또한 무리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렇게 공공 영역의 안보 서비스를 민간 시장에 사고 팔리는 상품으로 내놓음으로써, 인명을 거래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약점을 보여주었다. 이에 밀접하게 연관된 이근이 의용병으로서 참전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을 때도, 그가 수반한 문제점은 해명되거나 개선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본주의적 안보의 맥락을 지니고, 이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을 뿐이었다. 무사트가 '보여주기식 안보'를 표방하는 상황에서 과정 속 참전이 불러온 긍정적 영향을 예로 들며, 홍보 활동을 복돋아야 한다는 결과주의적 여론을 강화하는 일부 대중도 존재하였다. 이처럼 모두가 분명히, 혹은 어렵듯이나마 안보의 상품화를 통한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결국은 면죄부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야만 한다.

왜 대중은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국가의 법을 위반하고, 타국의 전쟁을 돈벌이로 활용한 이들을 용납했

까? 심지어 전쟁 영웅으로까지 격상시키는 등, 그의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하고 그를 우상시 하는 일부 여론의 행동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화제성만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현시대의 대중들은 참전, 그리고 참전을 통해 이근이 재현한 이상화된 남성성에 열광하고 있다.

이근은 5~6년 전에는 그저 민간 안보 기업의 일원이었으며, 군사 기술을 가진 일반인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는 성장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근래의 군사 프로파간다의 흐름을 새롭게 구축하였고, 유명세뿐만 아니라 상업적 성과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인식하는 안보 패러다임에 변화 구를 던졌다.



2010년대 초중반, TV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짜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할 것이다. <진짜사나이>는 MBC에서 2013년 방영한 리얼 버라이어티 병영 체험 프로그램으로, 약 4년 동안 장수한 인기 콘텐츠이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의 유명인들이 군부대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는데, 전성기에는 20%에 가까운 시청률을 보이며 시청자의 인기를 끌었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속 유명인들이 훈련을 통해 '진짜 사나이'로 성장하는 모습에 열광하였다. 이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자기 개발 서사에 군사훈련을 녹여냄으로써 시대가 원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에 군사화된 태도를 개입시켰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군사로서의 '되기'의 과정은 극영화 <소령 강재구>(1966) 이래로 수십 년 동안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반복된 공식이었고, <진짜사나이>도 이의 연장선에 놓인 콘텐츠이다.

<진짜사나이>의 성공으로 '군인 되기'의 아이디어는 후속 콘텐츠들에 적극 활용되었는데, 이근이 훗날 유튜브에 제작한 <가짜사나이> 콘텐츠는 이러한 군 콘텐츠 성공의 공식을 깨고 새로운 흐름을 제시한다.

2020년 유튜브에 업로드된 시리즈 콘텐츠 <가짜사나이>는 이근이 속한 민간군사기업 '무사트'가 강도 높은 동명의 UDT 훈련을, 유명인들에게 체험시키는 프로그램이다. 1기 프로그램에는 흔히들 '군기가 빠졌다'고 일컬어진 남성 인터넷 방송 BJ들,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외국인, 전역한 평범한 예비역 연예인이 참여하였다. 이 콘텐츠는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으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유행어가 언급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더불어 해군의 날을 기념하며 후속편으로 CGV에 극장판 개봉을 계획했던 만큼, 당해 가장 큰 화제가 된 미디어 콘텐츠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가짜사나이>의 성공 비결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하나는 선배 콘텐츠라고도 할 수 있는 <진짜사나이>의 성공 신화를 따라, '일반인'에 가까웠던 참가자들이 혹독한 훈련을 겪고 '군인'으로 재탄생하는 '되기'의 요소이다. 기존에 <진짜사나이>에서 진행한 보편적인 군부대 훈련보다 고강도의 훈련을 진행하면서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공감과 새로움을 가져다주었고, 동기부여로 이어지는 군사로서의 '되기'가 이번 콘텐츠에서도 훌륭히 작동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성공 비결이 <가짜사나이>가 제시한 새로운 콘텐츠 패러다임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미 '완성된 남성성'을 갖고 출연하는 교관들이다.

<진짜사나이>에서는 일반병으로 자리한 출연자들이 조망 받았으며, 함께 등장하는 실제 교관들은 출연자들이 체험하는 군 생활의 'NPC'로서 여겨지며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 그러나 <가짜사나이>에서는 교관들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인기몰이를 하였다.

교관들은 전부 특수부대 출신으로, 민간군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콘텐츠 진행 도중에 잘 단련된 신체와 함께 전쟁 무기를 다루는 기술을 선보이곤 하였다. 이러한 모습이 인기를 끌면서 수많은 팬이 생겨났다. '군인되기'의 콘텐츠를 반복하기 위해 탄생했던 <가짜사나이>는 강한 남성성의 과시가 얼마나 큰 인기를 끌고 영향력을 지니는지 확인하면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이는 군사성을 바탕으로 성장한 남성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짐을 보여주었다.

해당 콘텐츠를 시작으로 특수부대 군인들의 완성된 남성성을 조망하는 콘텐츠가 늘어났고, 이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채널A의 TV 프로그램 <강철부대>에 <가짜사나이>에서 교관으로 등장한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출연한 점이다.

<강철부대>는 <진짜사나이> 이후로 큰 인기를 끈 군 배경 프로그램이다. 이때, 과거 군을 모티브로 한 TV 프로그램이 '누구나 되어야 할 군인, 군인으로 되기'를 비추면서 전 국민이 군의 자질을 갖춰야 함을 어필했다면 <강철부대>는 '최정에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팀을 이뤄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처럼, 누구나 될 수 없는 '특별한 군인'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수한 군사 상황 속에 놓인 강인한 남성성이 하나의 상품으로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자본주의와 결합한 군사성이 매력적인 상품, 더 나아가 하나의 이상으로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군인으로서 갖게 되는 남성성에 대한 찬양은 예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러나 그 찬양이 목표하는 바가 달라졌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대의 모습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전쟁 이후부터 현대사회까지, 특

히 징병제로 운영된 우리나라의 군은 모든 남성이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여겨져 왔다. 과거의 전쟁에서 강한 국방력은 곧, 상대편보다 많은 군인의 수를 의미했다. 이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군사화 프로파간다는 ‘모두가 될 수 있는 군인’에 대한 찬양이었다. 그리하여 징병을 마친 남성들이 군대에서의 경험을 무용담처럼 여기고, 군 징병이 인간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 풍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군대의 모습은 달라졌다. 군사의 수가 더 이상 전쟁의 유효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았다.

한국군 ‘국방개혁 2.0’의 여러 분야별 목표 중 특히 세세하고 길게 강조되는 것은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군 구조 발전’이며, 인공지능, 드론, 로봇, 무인기, 우주 장비 등 최첨단 장비 개발로 성취하게 될 차세대 세계 방위산업에서의 선도적 위치이다. 다시 말해 한국군은 더 이상 다수의 일반군이 필요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안보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군사로서의 ‘되기’를 답습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한국 군사력과 그로 인해 비롯되는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찬양을 잃는다면, 현재 군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군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목표로 하는 안보의 모습과는 모순적인 군 홍보를 지속하며,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군의 모습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보다는 모순된 군의 겉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만 있다.

# 4

이 상황의 특이점은 기존의 군대가 갖고 있던 위치에서 비롯된다. 현대적인 군 체제가 형성된 이래로, 군대의 수직적이고 일방향적인 소통구조와 악습, 폭력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존재하였다. 이러한 미시적인 비판은 군대에 직접 참가한 자, 혹은 이들과 연관된 모든 국민의 몫이며, 파편에 대한 개인의 비판에 그친다. 그러나 군의 국방 행위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비판을 가하는 것은 민간 대중에게 어려운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군 당사자 또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국방 행위’라는 것은 간단히 ‘공익을 위한 것’으로 프레임되었기 때문에, 국가에 속한 개인은 이에 거시적인 비판을 주저하게 된다. 오랫동안 전쟁 정치를 유지해온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공적 행위에 대한 비판은, ‘적’과 ‘우리’를 구분하는 전쟁 정치식 논리 하에 ‘적’으로 규정되는 행위이다. 국가 내부에서 살아야만 하는 국민은 ‘적’이 되지 않기 위하여, 국방 행위를 옹호하고 묵인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고관습은 하나의 가치관처럼 굳어져, 그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국방·안보 행위이든 반사적으로 작용한다. 민간 군사 사업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오늘날, 특정 행위자가 자본주의적 성과를 위해 국방 행위를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행위 주체에 대한 결격을 지적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역시 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상업적 이해관계가 드러나는 국방 행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오늘날 국가는 이미 국가로서 제공하는 공적인 안보와 신뢰를 다수 민간 기업에 넘긴 상태이다. 그 때문에 국민들은 충분히 국가의 안보를 대할 때, 자본주의 시장의 상품을 다룬듯 검수하고, 비판하고,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 흥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직접 안보를 요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안보를 결정할 ‘자유’를 가지고 있고, 가져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끊임없이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훌륭한 안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특별하고 강한 남성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이 국가가 제공하고 성장시키는 군사와 안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군대는 공적 기관으로서 이상화를 이어 나가며, 성역과도 같이 존재하는 군 체계, 그리고 밀접하게 존재하는 상업적 이해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하고 강한 남성성’을 선택한 군은 대중이 군인에 대해 갖고 있었던 기존의 아이디어를 유지하는 동시에, ‘완성된 남성성’이라는 특수성을 부여하여 국방 개혁과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군 체계의 보여주기식 국방, 실질적 안보와 동떨어진 홍보 수단 결과 모든 국민이 큰 재력을 투자해야만 얻을 수 있는 안보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이 안이한 안보의 변화를 겪기 전에, 국가는 국민들이 안보를 무리하여 구매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국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국가에 우위에 서서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을 자본으로 저울질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자본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보를 구축하고자 자본주의적 안보에 대한 고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가 공적 안보를 약화하고 상업화된 안보를 선택한 결정이 과연 어디까지 유효할지 재고해보아야 한다. 강한 공적 안보는 자칫 국민들을 억압하는 군사력이 될 수 있으나, 국민들에 대한 통제와 보호를 적절하게 구분하여 ‘누구나 보호받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국가가 존립하는 한 언제까지나 존재하는 과제이다. 상업적으로 발 빠른 국방 행위자의 위협과 사고팔 수 없는 생명, 그리고 자본주의적 안보가 서로 팽팽하게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힘을 지닌 거대 주체들 사이에서 개인은 어떠한 안보를 꿈꿔야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 전쟁은 무엇을 무너뜨리는가 | 기후 위기 및 식량 위기를 중심으로

수습편집위원 60, 봉화  
편집위원 검은

그간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전쟁은 인간이 영위해 온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인간이 인간과 맺어온 다양한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 인류가 스스로 절멸할 가능성도 가진다는 수사법으로 이야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가 간과하는 것은, 인간이 일으키는 전쟁이 인간뿐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비인간 존재의 삶을 파괴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 글의 목적은 인간과 비인간의 생명이 가지는 가치의 경중을 일일이 따지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이나 전쟁을 유지하는 가치관이 지구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결국 이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에게까지 모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비단 인간의 삶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군대, 무기, 전쟁 전략 등 전쟁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는 기후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식량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 1. 전쟁과 기후 위기의 악순환

전쟁과 기후 위기는 서로가 서로를 되먹이는 악순환의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전시 중에 사용된 무기나 전략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는 심각한 환경 오염이 일어난다. 반대로 기후 위기로 일상을 영위하던 환경이 점점 생명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변하고 식량을 비롯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집단 간 갈등과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환경 오염과, 궁극적으로는 기후 위기가 더 심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1970년대에 일어났던 베트남 전쟁과 1980대부터 2000년 초까지 이어진 수단 다르푸르 분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비단 전쟁 전후뿐 아니라 전쟁 중에도 식량 자원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물품으로 기능하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적군의 식량 생산지, 혹은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쟁 전략 중 하나로 간주된다. 베트남 전쟁에서 제초제를 대량 살포하는 ‘랜치 핸드(Ranch Hand)’ 전략은 적군과 그 동조자들의 식량이 될 만한 농작물을 없애 뿐 아니라 적군의 은신처를 드러내 공중폭격 지점의 시야를 확보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작전에서 미 공군은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을 혼합하여 만든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고엽제를 비행기나 헬기로 베트남 농토지에 쏟아부었고, 산림벌채용 불도저로 매일 800헥타르씩 숲을 밀어냈다. 이는 전쟁에서 베트남의 산림과 농작물을 단순한 ‘잡초’로 취급했기에 자행될 수 있었다.

이 작전으로 베트남 전체 산림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2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녹지와 남베트남의 맹그로브숲 40퍼센트가 사라졌고, 수천 제곱킬로미터의 논과 밭이 반영구적으로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고 숲이 사라지며 홍수도 찾아지게 되었다. ‘랜치 핸드’ 전략으로 발생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쟁 이후, 해당 지역에는 고엽제에서 비롯한 독성물질에 노출되어 후유증을 앓거나, 토지의 오염 때문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한순간의 전략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훼손과 피해를 낳은 것이다.

수단의 다르푸르 분쟁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21세기 최초의 '기후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전쟁의 발발 원인과 결과까지 기후 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르푸르는 다양한 인종과 부족들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북부 지역에는 Zaghawa, Bideyat과 같은 아프리카계 부족과 아랍계 무슬림이, 서부 지역에는 아프리카인과 Fur, Masaleet 등의 비아랍인 부족들이, 남부 지역에는 Reziegat, Taisha Bani-Helba 등의 아랍 혈통의 부족들이 분포하고 있다.<sup>1</sup> 이들 다양한 민족과 부족 간의 다툼은 기후 위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수단의 연속적인 가뭄이 발생하면서 다르푸르는 점점 생존이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갔다. 이로 인해 부족해진 자원을 둘러싼 아프리카계 농경민과 아랍계 유목민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결국은 폭력적인 분쟁으로 번져갔다. 1990년대에 들어 분쟁에 가담한 부족들이 더 철저한 군대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다르푸르 내의 갈등은 격화되었다. 중앙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 잔자위드(Janjaweed) 민병대가 조직되자, 서부와 남부 지역은 잔자위드 군대와 정부에 대항하는 반대조직인 SLA(the Sudan Liberation Army)와 JEM(the Justice and Equality Movement)을 결집한 것이다. 특히 2003년, SLA와 JEM이 다르푸르의 일부 정부 조직을 공격하며 당초 부족 간 갈등이었던 분쟁 상황은 훨씬 큰 규모로 번져갔다.

다르푸르 분쟁으로 2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백만 명 이상의 국민이 난민이 되었다.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인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일례로, 수단 정부는 전쟁을 피해 수도 카르툼으로 도망친 피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곧 피난민 수용소 근방 반경 10km의 지대는 전부 황무지로 바뀌고 말았다. 피난민들이 취사와 난방을 위한 땀가로 인근 나무를 전부 채집해버렸기 때문이었다. 이에 더해, 잔자위드 민병대는 마을을 습격할 때마다 집이나 시설물을 방화하였으며 더불어, 나무를 불태우거나 벌목하는 등의 공격을 자행하였다. 이로써 피난민들은 돌아갈 곳을 잃게 되었

1 윤혜수,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Scarcity and Violent Conflict: A case study of Darfur」,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38.

으며, 지역의 생태계는 손 쓸 틈 없이 망가지고 말았다. 결국 기후 위기로 인한 갈등은 사람들이 원래로 돌아갈 일상과 살아갈 환경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로 인해 다시 자연의 파괴로 귀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 2. 무기가 된 자원과 기후 변화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뿐 아니라 전쟁에서 쓰이는 총기, 폭탄, 탱크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탄소 배출이 발생한다. 그러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는 위에 적힌 것만 있지 않다. 전쟁 과정에서 파괴된 것뿐만 아니라 전쟁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기후 변화와 그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을 악용하여 아군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로부터 불법 점유와 전쟁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리고 올해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사례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침략 이후 이스라엘의 불법 점유뿐 아니라 '기후 식민화'<sup>2</sup>로 곤경에 처해 있다. 다르푸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또한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폭염과 홍수가 증가한 지역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불법 점유하며 과거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에 행했던 것처럼, 기후 식민주의적 행동을 실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분리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

2 분자생물학자 및 철학자 크리스토프 레만 슈터(Christoph Rehmann-Sutter)는 그의 논문 '기후 식민주의의 중단하라'에서 '기후 식민주의'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기후 위기의 "이면에는 선진국에서 부를 창출해낸 개발 모델이 숨어 있다." 과거 제국주의의 양상으로 식민 국가에 자국의 상품을 들여오고 자국민이 정착하게 만든 것처럼, 부유하고 선진화된 국가들이 기후 위기의 책임과 생태발자국을 상대적으로 더 적게 남기는 국가에 "외주화"하는 것이다. 기후 식민주의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라. 신회피, 페트라, 「새로운 지배구조로서의 기후 식민주의」, 조예슬 옮김, Goethe Institut, 2019. 10. <https://www.goethe.de/ins/kr/ko/kul/ges/nac/21715212.html>

하기 어렵도록 만들었고, 기존의 팔레스타인이 관리하던 건조한 땅을 방치함으로써 사막화와 기후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행하는 기후 식민화 작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이미 심겨 있던 올리브 나무를 196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약 80만 그루를 벌목하였고,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오히려 나무를 심는 행동을 벌이고 있다. JNF(Jewish National Fund)를 통해 네게브 사막 베투인 마을에 숲을 조성해서 그들의 귀항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 이스라엘군은 드론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이 파슬리, 완두콩, 밀, 보리 등을 심은 밭에 제초제를 살포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인들의 농사에 직접적으로 방해로 가하며 이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자원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며 착취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는 팔레스타인이 지닌 수자원의 수탈에서 잘 드러난다.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는 라말라 지역의 강우로 형성되는 마운티 대수층을 주요 수자원으로 사용하는데, 이의 80%를 이스라엘이 가로채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측의 허락을 받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가능한 물의 양 또한 통제되어 있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새로운 수원을 강구할 틈 또한 주지 않고 있다. 1967년 이래 이스라엘은 수자원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서(西) 대수층에 팔레스타인인이 사용할 우물을 새롭게 파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은 이미 존재하는 수원 시설도 파괴하고 있다. 2011년 이스라엘은 수자원 관련 시설 89개를 허물었는데, 이 중 21개가 우물이고 34개는 농사와 목축에 필요한 빗물 탱크로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삶과 생업에 필수적인 것들이었다. 이러한 수자원 수탈의 결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내 대수층과 요르단 강 유역, 그리고 탈염된 물과 함께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의 수자원을 차지하였고, 이로써 이스라엘인들은 팔레스타인인의 물 소비량의 8배에 달하는 수자원을 향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자신들이 침략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한 지역의 에너지를 수탈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내의 천연가스를 추출해 유럽에 수출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챙기기도 하였다.

이런 불법 행동을 지속함에도, 이스라엘은 ‘그린 워싱’<sup>3)</sup>으로, “팔레스타인은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선전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임을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외부의 개입을 원천 봉쇄하는 동시에 팔레스타인이 처한 기후 위기를 본인의 입맛대로 사용한다. 결국 이스라엘의 기후 식민주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기후 난민으로 전락시키며, 이스라엘이 영토를 체계적으로 확장하도록 만들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갈등은 전쟁이 발발한 올해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어 소련의 한 부분이었던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 독립했을 때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서방화를 막기 위해 힘썼고, 이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충돌이 지속되어왔다. 2022년 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두 국가 간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요원한 상황이다.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신이 살던 터전을 떠나야 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일상이 파괴되었으며, 이들의 삶을 지탱해주던 대부분의 기반 시설도 무참하게 무너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과 전쟁이 망가뜨린 것은 두 국가 간의 사람들이 그간 영위하던 삶만은 아니다.

두 국가 간 전쟁은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동시에 전 세계의 식량 위기를 낳았다. 유럽이 처하게 된 에너지 부족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 러시아는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에 맞춰 필요량의 35%를 공급하는 주요 에너지 수출 국가이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명분을 확인하고 유럽의 전쟁 개입을 차단하고자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즉, 러시아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으로 공급되는

3 그린 워싱은 친환경을 뜻하는 'Green'과 세탁을 뜻하는 '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으나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천연가스의 양을 임의로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전쟁의 발발 이후 이미 12개의 EU 회원국에 천연가스 공급을 줄였고, 에너지 소비의 상당량을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직접적인 에너지 부족의 피해를 겪고 있다. 에너지 공급의 주도권은 여전히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유럽은 올해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한다'는 우려가 나타날 정도로 유럽이 겪는 피해는 현재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전망이다. 물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과 유럽 국가의 국민을 결코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유럽 국민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지속마저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로부터 온전하게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자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겠다고 하며 탄소 배출이 가장 심한 화석연료와 환경적인 면 외에도 여러 위험성을 지닌 핵발전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등의 실천을 통해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시도해왔다. 그러나 이번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화석연료 소비가 다시 증가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조금이나마 논의되어 온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다시 전쟁과 일상생활에 묻혀버리는 악영향이 초래되었다.

앞서 서술했듯이 러시아가 활용하는 무기는 비단 천연가스만 있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이 초래한 식량 위기는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식량 위기'라는 말이 허풍이 아닐 정도로 유럽 이상의 규모로 피해의 확산이 커질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전 세계 농산물 주요 생산국 및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수출하는 농산물이 전 세계에 공급되고 점유되는 비율은 옥수수 13.6%, 밀 8.5%, 해바라기 가공품인 해바라기유와 해바라기 박은 40%가 넘을 만큼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의 식탁에 차려지는 주요 식자재의 수출량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수출해 온 농산물의 생산량은 이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우선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농토지와 농사에 필수적인 비료·식자재 농장이 다수 파괴되어 농작물을 길러낼 환경조차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

나는 우선 당장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국의 피난민과 군인에게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기에 농산물의 수출을 규제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 경로가 막힌 것도 수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 농작물은 흑해를 거쳐 전 세계로 수출되어왔는데, 러시아가 수출 규제를 내림으로써 많은 항구 도시가 막혀 해상 운송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료의 감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러시아는 매년 세계 생산량의 13%에 해당하는 5,000만 톤의 비료를 수출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비료 수출을 중단하였다. 농사를 짓고 있는 많은 사람이 비료를 이용해 농작물을 키우고 있다. 비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수확량이 절반까지 감소할 수 있어 비료 감소가 농작물 생산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역력하다.

식량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감소한 식량 생산량은 결코 우크라이나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지속되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농산물을 비롯한 식자재를 들여오기 어려운 많은 나라가 해바라기유 대신 식용유나 콩기름을 수입하는 등 '대체재'를 찾는 중이다. 결국 해바라기유뿐만 아니라 해바라기유의 대체재인 식용유와 콩기름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많이 증가하면서, 이들 가격도 함께 상승하였다. 해바라기유, 밀을 비롯한 여러 식자재의 수요와 공급-그리고 가격의 변화는 작금의 사태와 관련 없어 보이는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예시로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한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농작물을 많이 수입하지 않지만, 이번 전쟁으로 물가의 변동을 겪고 있다. 한국은 주식인 쌀뿐만 아니라 치킨, 짜장면, 밀 떡볶이, 갈비탕 등 우리가 즐겨 먹어온 밀을 사용한 음식이 우리의 제2의 주식이 될 정도로 밀의 수요가 많다. 그렇기에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규제된 상황은 이러한 밀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의 요식업계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당장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가게의 여러 음식과 식자재 비용이 오르는 원인 중 하나는 결국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부터 파생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올해 발생한 폭염과 홍수 등으로 이전보다 심하게 기후 변화가 나타나 식량 생산이 더욱 감소하면서, 생

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음식마저도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닿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심화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기후 변화와 식량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전쟁에서의 자원과 식량 등 무기가 아닌 것의 '무기화'는 우리를 근시안으로 만든다. 당장 눈앞에 있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결국 먼 미래를 보지 못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만다. 이번 전쟁이 끝나고도 자원과 식량의 무기화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의 식탁이 위험하다. 한 번의 흉작이 있었고 내년에는 풍년이 오기를 기도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경작 시기를 놓쳐버린 해에는 농작물 생산을 할 수 없다.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땅에선 예전만큼 농작물을 생산할 수 없을 것이다. 물가의 상승과 변동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른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과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의 수출 규제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전쟁 상황에만 쓰이는 총, 탱크 등의 무기뿐만 아니라 자원과 식량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타국 간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타격에 대해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 3. 전쟁 이데올로기가 차린 식탁

앞서 전쟁에 의해 기후 위기와 식량 위기가 초래되고 가속화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전쟁이 휩쓸고 남기고 간 것'은 전쟁으로부터 살아남은 생명들이 그 잔해를 일상으로부터 치우고 새로운 터전을 일구는 순간까지도 곁에 남아있다. 군사주의와 전쟁의 패러다임은 일상을 전쟁으로 만든다.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재배하는 모든 과정에서 전쟁을 배제할 수 없고, 전쟁을 이끌어내는 논리가 그 과정을 옹호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경작마저도 세계화와 단일화를 거치게 되고, 지구는 끊임없는 전쟁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낸다.

반다나 시바는 현대 인류의 식량을 책임지고 지탱한다고 '믿는' 산업농의 방식과, 주류 담론으로부터 괘시당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비교하면서 현재의 농업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시바는 '폭력적인 지식 패러다임, 화학비료, 독과 살충제, 단일경작, 대규모 산업형 농업, 종자 독재, 세계화, 기업'이 가장 효율적인 농업이라는 믿음이 '산업농'이라는 신화를 만들었고, 지금의 농업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끌었다고 말한다. 시바는 앞에서 언급한 단어들로 대표되는 농업 시스템을 '농생태학'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현재의 식량 위기를 해결해나가야 함을 역설한다. 시바의 의견을 빌려서, 우리는 직접적인 전쟁의 과정과 결과뿐만 아니라 그간 전쟁을 뒷받침해온 논리들이 어떻게 현재에 초래된 식량 위기와 함께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전쟁에서 당연한 상식으로 통용되는 군사주의적 사고방식은 '아군'과 '적군'을 상정하고 적군으로 판단한 이들을 편하게 착취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절멸한다. 전쟁에서 아군에 필요한 것들을 착취하고 쓸모없고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망설임 없이 제거하듯이, 현재 세계적인 대기업에 의해 진행되는 농업 방식은 군사주의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생태계의 모든 자원을 대기업이라는 일부 세력의 입맛에 따라서 조작하고 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시바가 이러한 '산업농'을 근거하는 이론적 근거를 두 가지 이론으로 보았는데, 첫 번째는 뉴턴-데카르트식의 분리 이론이다. 뉴턴은 세상을 더는 쪼개질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이는 자연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죽은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으로써 시바는 이를 '레고 세트'로 비유했다. 잃어버린 레고 조각을 언제든지 같은 모양의 다른 블록으로 대체하듯 뉴턴의 이론은 자연을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변형시키고,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한다. 근대 과학이 만든 자연에 대한 그릇된 해석은 유전자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고 이는 유전물질이 지배 분자로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장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 믿음 체계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식품)로 계보



가 이어진다. GMO는 특정 인종의 우월함을 외치며 학살을 벌인 이들의 믿음과 다르지 않은 사고방식에서 기초한다. 바로 유전적으로 “우월한” 종을 인류를 위해서 남겨야 한다는 우생학처럼, 유전 공학을 통해서 인간에게 “유익하고 좋은” 종만을 번영시키겠다는 의도는 궁극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해칠뿐더러 자연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괴하게 보인다. 그렇지만 이는 산업농에서 “생산량의 증대”라는 목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번째는 다윈의 진화론이다. 다윈은 종의 경쟁을 생존의 패러다임으로 설정하였고, 이로부터 비롯된, 식물이 종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종과 싸울 수 있다는 믿음은 산업농의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산업농이 만들어낸 단일 경작법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또한 다윈의 이론은 농작물을 두고 곤충과 인간이 대립하는 구도를 만든다. 다윈주의와 뉴턴-데카르트식의 분리 이론은 착취의 논리를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지식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도록 도왔다. 인간만을 위한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지식 패러다임은 자연을 무기질로 전락시켰고, 이는 산업주의로의 원만한 변환을 주도했다.

앞선 이론을 등에 업은 산업농의 방식은 자연을 침략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식민지로 만든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적인 행보와 다르지 않다. 산업농은 지구의 아픔과는 상관없이 당장 필요한 것을 뺏아낼 수 있도록 동식물을 죽이고 용도에 맞게 개량한다. 지구를 정복할 수 있다는 개념은 언뜻 농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영토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농업이 전쟁의 과정을 일부 재현하도록 만든다. 이는 농업에서 흔히 쓰이는 살충제에서 잘 나타난다. 전쟁에서 비롯된 산업농 패러다임은 한때 인간을 말살하는 데 사용되었던 화학 물질을 사용해 자연을 무참히 파괴하고 있다. 산업농이 사용하는 농화학 물질이 전쟁의 산물이자 그 본래 목적이 살생에 있었던 점은 곧 산업농의 자연에 대한 전쟁 선포로 이해할 수 있다. 농업은 인간의 생존이라는 목적 아래에 지속되지만, 그 과정에서 무기를 이용해 인간을 비롯한 다른 생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살충제는 전쟁에서 산업농이 휘두르는 무기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농업에서 나타나는 해충과의 전쟁은 이해관계에 따라 편을 나누고 상대편을 죽이는 전쟁의 구도와 다를 것이 없다. 해충도 인간의 관점을 벗어나

보면 결국 자연에 속하는 구성원이며 모두 그 나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해충(害蟲)이라는 단어도 인간에게 “해롭고 방해를 준다”고 여겨져 만들어진 개념에 불과하다. 그리고 살충제가 종자 소독에 그치지 않고 농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을 죽인다는 점 역시 특정 생명을 적으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 낳은 폐해이다.

지금까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업농 패러다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비교해 ‘반환의 법칙’에 대해 살펴보자면, 이 법칙 속에서의 인간은 농사로 맺은 결실을 다시 그 근원인 자연으로 돌려주었다. 반환의 법칙이 중심이 되었던 과거의 농업에서는 생산자인 인간과 결실을 맺어주는 자연이 반환의 순환을 통해 이어졌다. 이러한 연결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농업이 충분히 자연이 감당할 만한 선에서의 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살충제를 비롯해 오늘날 인간이 생산 효율만을 높이기 위해 벌이는 시도는 그간 반환의 법칙과 그로 이뤄내 온 균형을 파괴한다. 살충제와 비료로 만든 생산량은 결국 환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방식의 농업은 토양 내 유기물의 균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지만, 화학비료는 반대로 토양을 더 이상 농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유기물이 없는 텅 빈 토양에 비료를 부어 농업을 지속하는 것은 농작물의 영양분에 심각한 손해를 만들어낸다.

식량은 때로는 생산자-인간의 문화이자 그의 정체성이 된다. 인간이 환경에 맞춰서 농사를 짓고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문화는, 결코 전쟁이 만들어 낸 단일경작의 효율성에 대한 믿음에 굴복하여 판매의 목적만을 가진 작물들로 치환될 수 없는 고유의 정신을 지닌다. 그렇지만 산업농의 사고방식이 확고해지면서, 이 식물들에 대한 침탈과 일률적인 단일 종 경작으로 내몰린 토양과 반환의 법칙 정신은 전쟁의 이데올로기로부터 공격받기 시작했다. 전쟁은 단순히 자원의 소모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희생되는 생명이 분명히 존재한다. 식량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소비되기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면에는 전통 농법과 비옥한 농토를 빼앗긴 생산자가 있다. 산업농으로 생산된 농작물을 소비하는 자신마저도 생산 과정에서의 폭력에 가담하고 있다

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식량을 단순한 상품으로, 전쟁을 단순한 지나간 역사의 일부분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산업농을 비롯한, 전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인류는 자연에 순응하기보다 자연을 정교하게 변형하고 파괴하는 신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을 위해 만들어낸,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로 오히려 스스로를 궁지로 내몰고 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짜놓은 판에서 인간은 '녹색 혁명'의 신화를 추앙하며 막상 그로 인해 잃어가는 것들을 외면한다. 인간은 결국 더 많은 것을 앗아가는 파괴적인 패러다임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내가 아닌 존재의 죽음이 주는 안락함에 길들여져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잊고 있다. 현재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농업이 극소수의 자본가만이 이익을 취하고 소농과 소비자는 언제나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자연과 식량을 잃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식량 생산의 권력을 어째서 극소수로부터 뺏어오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껏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로부터의 탈피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생물 종을 멸절해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는 군사주의적 사고방식을 벗어나, 인류를 지구 가족의 일원으로 보고 꽃가루 매개자들과 익충들을 먹이 그물 내의 공동 생산자로 인정하는 세계관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다."<sup>4</sup> 시바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에서도 전쟁이 만든 사고의 철회가 절실하다.

4 시바·반다나, 『이 세계의 식탁을 처리는 이는 누구인가』, 우석영 옮김, 책세상, 2017, 98.

지금까지 거칠게나마 전쟁과 기후 위기의 연관성, 그리고 전쟁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비롯된 식량 생산에 관해서 다뤄보았다. 전쟁, 기후 위기, 식량 위기-그리고 오늘날 농업 패러다임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식량 생산의 방법은 여러 파편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전쟁은 다양한 무기로 비인간 존재도 파괴하면서 결국 이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무너뜨리고, 전쟁의 이데올로기는 비단 전쟁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식탁에서도 나타나 우리를 지배한다.

이 글 너머로 지금 이 순간에도, 더 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글에 쓰이지 않은 더 많은 희생이 나타나고 있다. 간략한 형태로 제시된 국가와 지역 이외에도, 현재에도 벌어지는 수많은 전쟁들에서 우리는 민간인의 생명과 함께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결국 여전히 필요한 반전(反戰) 운동과 실천에 있어서, 우리는 전쟁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과 농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들의 구조적 착취의 탈피를 어렵게 만드는 전쟁 이데올로기를 함께 사고하고 이에 맞서야 한다.

# 문우의 눈



편집위원 겸은

# 해피 엔딩이 아닐지라도

※ 이 글은 우울과 불안과 함께,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다루니 글을 읽으실 때 참고 바랍니다.



#1

2022년 3월. 뉴스에서는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근처 동해까지 번져갔다는 소식이 흘러나온다.

검은 뉴스를 보며 어서 불이 진압되길 기도한다.

2022년 4월. 야외 온도판이 현재 기온 30°C에 육박했음을 알린다.

검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더운 몸을 식히기 위해 손으로 부채질한다.

2022년 6월. SNS 타임라인에 인도와 파키스탄, 최근에는 유럽에서 40~50°C에 다다르는

폭염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뜬다. 핸드폰을 끈 후 검은 옷을 같은 표정을 지은 채 무릎에 얼굴을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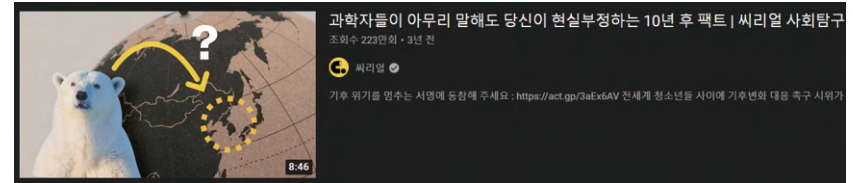
요즘, 우리는 매 순간 날씨의 '이상함'을 마주한다. 항상 '기록을 달성하는' 이례적인 날씨는 이미 우리에게 친숙해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날씨가 이전과 다름을 느끼더라도, 고개만 가우뚱할 뿐 다시 각자의 감정과 일에 집중한다. 어쩌면 전혀 이상함을 체감하지 못한 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달라진 날씨와 주변 환경은 나에게 공포와 우울로 다가온다.

내가 이전부터 기후 위기로 인해 우울감을 느낀 것은 아니다. 어릴 때는,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물론 공교육과 미디어에서는 통칭 '지구 온

난화', '환경 오염'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이야기해 왔고, 나도 역시 이를 경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그들이 가르쳐준 대응책은 모두가 알다시피 다음과 같았다. 쓰레기를 잘 분리 배출하기, 가정에서 물과 전기를 절약하기,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기 등. 기후 위기는 모두의 문제이지만, 각자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포장된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기억나는 대로 환경에 도움 되는 행동을 실천하였다. 기후 위기에 있어 내게 그 이상 다가오는 것은 없었다. 나의 10대 시절은 그저 (한국 사회에 산다면 응당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입시 제도에 치여 살기에 바빴다.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왔다.

2020년 1월이었다. 입시가 끝나고 대학 입학 을 기다리던 때였다. 할 일 없이 유튜브를 보다가 추천 목록으로 한 영상이 떴다.

솔직하게 말하면 영상의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영상을 보는 내내 공포와 두려움을 감각한 순간만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 동안 내가 인식했던 환경 문제보다, 인류를 포함하여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처한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2030년을 기점으로, 지구의 온도가 1.5°C 더 오른다면 "세상이 망할



이미지 출처: 씨리얼, (2019. 8. 26.), "과학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당신이 현실부정하는 10년 후 팩트 | 씨리얼 사회탐구"

지도 모른다." 내가 막연하게라도 꿈꿔 온 미래가 통째로 상실되고,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한 점은 내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영상을 본 해는, 여름에는 유독 장마가 길었고 겨울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으며,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하기 시작했다. 영상을 본 이후 나의 일상은 (물론 계속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때 눈과 귀로 배운 기후 위기와 그에 따른 충격을 현실에서 끊임없이 마주해야만 하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기후 위기를 실감하면서 느끼는 충격, 그리고 그로부터 생겨난 불안과 우울은 그동안 내가 죽음에 대해 가져온 공포를 더 크게 일으켰다. 어릴 때부터 나는 죽음이 무서웠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를 잃었을 때 죽음에 대한 슬픔과 공포를 마주하는 것과 별개로, 일상에서도 죽음을 떠올리면 두려움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모든 것이 사라지거나 죽는 것이 당연하고, 영원함은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숨을 쉬지 않고, 의식이 더 이상 남지 않아 생각과 상상이 멈추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떤 모습으로 남을 수 있는 걸까? 어쩌면 나는 변화가 무서워서 죽음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지도 모르겠다. 현재의 나는 심해진 우울증 탓에, 어떤 모습으로 늙어가고 죽을지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나는 누구도 예측하거나 진술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어떤 조언도 들을 수 없는, 필연적인 변화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 위기 역시 나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대상이다. 기후의 급속한 변화로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죽음을 생각하며 느끼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을 더 부풀렸다. 정말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커다란 해일에 휩쓸려서, 아니면 갑작스럽게 빙하기가 찾아와 한순간에 얼어붙어서, 아니면 이전 시대처럼

운석이 날아와 다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닐까. 내가 알지도, 예상하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나를 포함해 내 주변 사람들, 동식물, 땅, 날씨, 내가 마주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변할 것을 상상하면 늘 무섭고 괴롭다. 그동안의 안온했던 일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내가 살아가는 세계와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는 와중에 해내야 할 생존이 두렵다.

##2

검은의 집. 검은의 자신의 방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다. 거실에서 소리가 언뜻 들려온다. TV에서는 해일이 밀려온다는 설정의 재난 영화 광고가 흘러온다. 곧이어 가족들의 이야기 소리가 검은의 귀에 명확하게 들린다.

△△△: 현실에서 저러면 어떻게 사냐.

○○○: 어차피 2030년엔 지구 온도가 1.5℃ 올라가서 망한다며. 그때까지 돈이나 많이 벌어야겠다.

검은은 당장 방에서 나와 가족들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와 말재주가 없어 미간을 찡그린 채 고개를 저을 뿐이다.

2018년, IPCC 제5차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지구의 기온이 1.5℃ 더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를 기점으로, 내 일상에서는 다시 종말론적인 언어들이 불쑥불

쑥 나타나기 시작했다.  
“10년 후에 인류는 멸종한다.”  
“지구의 온도가 1.5℃ 더 넘어가면 끝장난다.”  
“지구 멸망은 이미 시작되었다.”  
...

기후 위기의 소용돌이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재난과 종말을 너무도 쉽게 소비하고 있다. 기후 위기를 부정하든, 혹은 기후 위기의 현실을 깨달았든 어떤 간에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죽음’, ‘멸망’, ‘멸종’, ‘종말’은 단지 ‘끝’과 ‘망(亡)함’을 표현하기 위해 온갖 맥락에 뒤섞이면서 남용되고 있다. 그 발화마저도 대부분은 엄숙하고 진중한 분위기 속에서, 명확한 언어를 통한 것이 아니다. 재난을 오락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미디어의 언어로 “끝”을 너무나도 쉽게 접하고,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남발된 말은 무엇을 낳을까. 어쩌면 이 인류가, 세계가, 지구가,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쉽게 이야기하는 현상은 그만큼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상실을 열심히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겠다.

재난 영화에서의 ‘우리’는 참 다양하고 많은 위기 앞에 놓인다. 거대한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큰 해일이 온 세상을 덮친다든지, 갑작스러운

빙하기로 모든 것이 얼어붙는다든지. 재난을 다루는 콘텐츠는 실재하는 가능성을 다룰지라도 반드시 판타지의 요소가 가미된다. 콘텐츠의 시나리오의 비정상적일 정도로 거대한 재난이 닥친 지구를 보여주며 실제 세계를 은폐하고, 편하게 미디어를 즐기는 ‘우리’를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게 만든다. 스크린 속의 인물이 아닌 현실의 나는, 편하게 자리에 앉거나 누워서 재난을 구경하고 있는 존재니까. 현재 나의 삶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처한 시련보다는 안온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재난 영화 속 장면처럼 그리 쉽고 간단하게 종말을 맞이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더욱더 열기로 가득 찬 세계에서 숨을 쉬며 살아야 하고, 식량이나 살 보금자리가 없다는 압박감에 눌러서 지금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고 죽어갈 뿐이다. 우리가 알던 세상이 무너지고 변해가도 우리는 최소한의 생존 조건만 갖추어 있다면 살아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용어의 남용과 오락화는 기후 위기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기후 위기에 대한 충격과 경각심, 조그마한 실천의 의지는 커녕 오히려 반감만을 일으킨다. 그들은 몇십 년 전, 21세기에 다다르기 전에 잠깐 유행했던 종말론처럼, 기후 위기를 그저 또

하나의 허황된 이야기로만 여기게 된다. 반대로, 기후 위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나 기후 위기에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이들에게 이는 언어폭력으로 작용한다. 우리 앞에 놓인 미래의 모습은 처참할 것임을 이미 알기에, 회의론은 “*어차피 우리는 망해버릴 텐데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의 허무함만을 낳는다.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도 아닌 공포와 허무함뿐이다. 극단적이고 공포를 일으키는 발화는 개인이 겪는 우울함의 감정을 악화시키고, “*어차피 망할 테니까.*”라는 생각에 잠겨서 누구도 행동으로 선뜻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절망과 비소가 교차하고, 재난과 위기가 하나의 오락거리로 전락한 시기에, 비교적 안전하고 온전한 일상을 누리려 하는 이들에게 기후 위기는 또 다른 유희거리이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말했다, 우리는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돈을 먹을 수 없다.”<sup>1)</sup>

그렇기에 공포의 감정을 포함한 메시지는 나와

1 참고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마지막 한 그루까지 나무를 다 베어 내고서야, 마지막 강줄기까지 오염시키고 나서야, 마지막 한 마리 물고기까지 씨를 말리고 나서야, 당신은 돈을 먹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크리(Cree)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격언, 조호제, 『침묵의 범칙 예코사이드』, 창비, 2022, 94.

나의 주변인, 나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이를 모를 누군가 모두의 생명들이 겪는, 그리고 겪어야 할 미래를 상상하고 행동하는 길을 막는다. 그리고, 사회적인 재난을 목도하면서 마주한 수많은 감정들이 오로지 개인의 병리적 현상으로 치환될 때, 실제 누군가가 위험에 빠지고 목숨을 잃는 재난을 오락과 기회로 삼을 때, 기후 위기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결과와 삶들은 은폐된다.

##3

마주보고 앉아 있는 의사와 검은 검은 단정한 자제로 앉았지만 긴장한 내색을 보인다.

의사: 불안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검은: (망설이며) 음... 그냥 사고의 흐름이... 다 기후 위기로 이어져요. 당장 폭염 뉴스를 접하면서 불안해지고... 이대로 다 죽으면 어쩌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생각에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의사: (잠시 침묵. 그러나 평온한 표정으로) 항우울제를 혼자라도 더 센 것으로 처방해 드릴게요. 낮에도 불안하다 싶으시면 (하얀 약을 가리키며) 이 약도 추가를 더 드시고요.

검은: ...네.

검은은 떨려있고 실망한 표정으로 대답하지만, 표정은 마스크에 가려져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

끝을 회피하거나 오락으로 소비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기후 위기는 불안을 비롯한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다. 다시 말해 의사에게 내 불안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그 원천인 기후 위기를 말할 수밖에 없다. 용기를 내서 내 심정을 말한 후 들려온 대답은 더 효과 좋은 항우울제를 처방하겠다는 말이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생긴 나의 우울한 감정은 정신과 의사에게는 오로지 더 많은, 더 강력한 약이 필요한 개인적인 우울증—병(病)으로 환원된 셈이었다. 그러나 내가 겪는 우울은 단순한 생화학적 불균형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일까. 폭염, 산불, 홍수, 비정상적인 해빙이라는 수많은 재앙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커진 우울과 불안, 수많은 감정들은 오로지 나만의 병리적인 현상일까.

기후 우울증(Climatic Depression)이라는 학술적 용어가 등장할 만큼, 나-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하고 단발적인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망가지고 어긋난 세상에서 경험되는 사회 현상이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위기가 곧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어쩌면 기후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닌 일상이 되고, '위기'로도 취급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의 불안을 회피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대면하는 것

일 수 있겠다. 이 때문에 나는 기후 우울증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막상 나의 감정을 살살이 파헤치면서 다시금 느끼고 있는, 기후 위기를 마주하면서 겪는 감정의 결은 곱지 않다. 당장 나의 경우, 기후 위기에 대한 감정은 죽음 공포의 형태로 불쑥 내 머릿속에 등장한다. 아무리 그런 생각을 억눌러도, 기후 위기를 마주할 때 드는 감정들을 하나하나 골라내다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섞인 외로움과, 거침과, 젖음을 느끼게 된다.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스럽게 죽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눈앞의 기후 위기를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죽을지도 전혀 모를 앞으로의 상황이 두렵다.*

물론 기후 위기에 걱정하는 만큼 나 역시 친환경 행동을 조금씩, 더 많이 실천하기 시작했다. 되도록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기회가 되면 육류 대신 채식 식단으로 식사하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옷이나 물건은 사지 않으려는 등... 물론 실천하면 작게나마 뿌듯함을 느끼지만, 가끔씩은(어쩌면 자주) 위의 행동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대한

죄책감과 강박감이 든다. 기후 위기로 사람을 비롯한 많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는 허무함도 함께 몰려온다. *이 행동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미 늦은 것 아닐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후 위기의 소식과 내 심정을 알리는 과정에서도 좌절을 겪는다. 재난과 위기에 무던해진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의 심각함, 그렇기에 행동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파하는 것은 (성과 여부와 관련 없이) 하나의 크고 고된 도전에 가깝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돌아오는 반응은 야유와 부정이다.

*“환경 문제가 심각한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까지 걱정해? 그냥 편하게 살아.”*  
*“기후 위기? 그런 건 없어. 그냥 너는 우울한 상태인 거야.”*

큰마음을 먹고 목소리를 내도 나-우리가 감각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감정은 당장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에도 다른 일에 밀려 '사소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된다. 내가 느끼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후 위기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말을 들을 때면, 어느 때는 차라리 나도 이틀처럼 생각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속 편하게, 그저 내게 놓인 사소하고 평범한 일에만 신경 쓴 채 큰

걱정과 고민 없이 지내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럼에도, 나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한다. 아니, 행동으로 나서지 않을 수가 없다.

#n

검은의 시나리오가 비어 있다. 검은의 종이는,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까.

내가 행동으로 나서는 이유는 기후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한 채로, 아니면 위기가 아예 없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도 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재난을 기회처럼 생각할 때, 누군가는 편하게 ‘망해가는 세상’을 상상하며 자신의 일상에 안주할 때, 나는 그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우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더 고통스럽게 살아갈/죽어갈 사람들이 걱정된다.

또 언젠가 읽은 기후 위기 뉴스에서 “늙어 죽고 싶다”는 청소년 활동가의 목소리가 떠올라 서였다. 비록 나는 상상하지 못할지라도, 누군가는 조금이라도 편하고 안전한 세상에서 늙어 죽을 수 있는 미래를 열렬히 꿈꾸고 있다. 이들의 소망을 지나칠 수 없었다.

올해 함께 참여한 행진과 시위를 떠올린다. 시위에서 열심히 구호를 외치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차별과 아픔이 없어지기 전

에 이 세상이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지?” 기후 변화가 생을 덮칠지라도,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차별로부터 해방된 사회에서 숨 쉴 수 있기를 바란다.

...

이런 생각을 품고 있어도 여전히 나는 기후 위기로 불안함과 무서움을 겪는다. 흔히 쓸데없는 감정으로 여겨지는 우울함과 절망을 일상에서 체화하며 말하고, 움직인다.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느끼는 이 우울함과 좌절, 절망, 분노는 단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개인의 감정으로만 치부되는 우울함은 실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으로써, 사회의 부조리하고 망가진 면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우울을 겪음으로써, 나 스스로가 망가짐과 어긋남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나와 타인의 삶과 미래를 어떠한 변화로 이끌어준다.

막막하고, 무섭고, 화가 나고, 슬프고, 서러운 감정은 결코 잘라낼 수도, 풀어낼 수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 비록 이 모든 실들은 하나하나 뜯어내고 집어낼수록 나를 다치게 하고 울게 하지만, 오히려 촘촘하게 묶이면서 나를 살아가도록 지탱하는 구멍줄이 되기도 한다. 그래도 좀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

렇게 작고 사소한 행동이라도 실천하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늦춰져서, 내가 바라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와 희망을 통해 묶인 구멍줄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후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에 욱하며 절망감을 느껴도, 결코 지금까지의 행동들을 멈추거나 현실에 눈을 돌리지 않게 만들어준다. 결국 내가 죽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지탱한다. 그렇기에 사적이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지라도, 나의, 우리의 작은 감정들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때로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내며 나를 다독이고, 때로는 타인과 나의 감정을 진솔하게 나누며 기후 위기에 대한 내 마음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은 변화하는 일상에 대처하고 적응하도록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도 나처럼 기후 위기에 대해 우울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고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솔한 감정과, 소망과, 상상이라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모든 것을 살려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건 분명 아직 남아있을 테니 말이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두지 않을 것이다. 기후 위기가

지속되는 한 나의 우울함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야 할 우울함에 잠식되기보다, 우리 삶의 끝이 해피 엔딩이 아닐지라도, 우울함을 창과 방패로 삼아 할 수 있는 한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참고 문헌>

전혜은, 『퀴어 이론 산책하기』, 도서출판 여이연, 2021.  
조효제,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창비, 2022.  
헨틀리·리베카, 『기후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민희 옮김, 양철북, 2022.  
씨리얼, “과학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당신이 현실부정하는 10년 후 팩트 | 씨리얼 사회탐구” 2019.8.26.,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H-SJ3eKdhSA&t=2s> (접속일자: 2022.9.6.)

# 문우 65호 독자모임

정리정돈 포슬

마감이 한창인 1월의 추운 어느 날, 구글 미트로 간소한 독자모임이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편집위원 검은과 능, 포슬, 그리고 독자 보라머리 앤이 자리해 주었는데요. 비대면 학기로 인해 몸과 마음의 거리가 여느 때보다 멀었던 지난해에도, 잊지 않고 문우를 찾아주신 독자 분들, 그리고 귀한 시간을 쪼개어 독자모임에도 들어와 주신 보라머리 앤님께 감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이제부터 지난 글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다짐을 굳게 다질 수 있었던 그 시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우 65호, <시선의 좌표>의 기사들은 문우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0. 자기소개

**포슬** 포슬이라고 합니다. 독자모임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능** 안녕하세요, 편집장 능이라고 합니다. 독자모임이 활성화되고, 맛있는 것도 드리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아쉽습니다.

**검은** 안녕하세요.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검은입니다. 독자모임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해요. 다음 호에는 더 많은 독자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라머리 앤** 문우 분들 보니 필명이 한 글자에서 두 글자인데, 저는 별명이 다섯 글자나 돼서 스스로 말하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보라머리 앤입니다. 저번 문우 독자모임에 참여했는데, 그때의 기억이 좋았기에 이번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1. 기획 구성

### 1-1. 제목과 표지 디자인은 어땠는지?

**포슬** 막간을 틈타 제목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난 학기 세미나의 중심 텍스트가 김도현 작가님의 『장애학의 도전』이었어요. 그 책의 서문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키워드가 장애학의 ‘시좌’에서 세상을 본다는 것, 특히 ‘시좌’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를 풀어서 제목을 지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시’선의 ‘좌’표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표지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몸에 대한 알레고리를 담을 수 있는 표지였으면 좋겠다

1 시좌(視座) (1) [명사] 사물을 보는 자세 (2) [명사] 개인이 자기의 입장에서 사회를 보는 시점을 이르는 말. 지식사회학의 용어이다. (“시좌.”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9d99fb9cdf84fd59f185770d069bad3>.)





는 생각을 했었고요. '일괄적'인 몸들이 부대끼는 모습을 표현하려 했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원래대로라면 책등에 '문우 예순 다섯번째 이야기, 시선의 좌표' 이렇게 박혀 있어야 하거든요. 이번 경험을 계기로 시안을 실물로 받아보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어요.

**능**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시선의 좌표'라는 것이, 사실 앞에 서면 안보이는 것들이 뒤에 서면 보이는 게 있고, '앞과 뒤'라는 게 또 위계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제목을 고를 때, "우리는 어떤 '시선의 좌표'를 취해야 할까?"라는 의미가 담겼으면 했어요.

다만 흑백 표지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을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쁘게 은 박으로 박았어요. 조금 아쉬운 것은 겉에 비해 안쪽이 굉장히 컬러풀하다는 점입니다. 둘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라머리 앤** 제목을 보자마자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를 생각하고 만드셨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시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선의 좌표'로 끝나는, 시선의 궤적이 연상되어서요. 제목이 문우분들이 담아내고자 하는 이야기들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검은** 표지의 사람들이 직모인 사람도 있고, 곱슬머리인 사람도 있고, 피부색도 명암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최대한 다양한 모습을 다루려고 노력한 것, 또 그만큼 기사의 주제들도 다양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더더욱 마음에 들어요.

**1-2. 권두시 & 편집장 서문**

**포슬** 고백하자면, 저는 시를 읽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시어보다도) 이 시가 이야기하는 이미지들이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기형'이라는 말이

이 시의 중심에 있잖아요.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몸들, 그것들이 생동하는 모습들, 그것들이 정해진 틀과, 그릇 같은 것들을 넘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날뛰는 모습들이 거칠게 느껴져서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던 권두시였습니다.

**능** 저도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기형'이라는 단어가 낯설면서도 임팩트 있었어요. 그래서 - 원래 시인에게 작품 해석을 의뢰하면 안되지만 - 너무 궁금한 나머지 단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를 지으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시인은 "‘정상성’에 있는 것들이 당연히 여겨지지만 나중에 역사에 남겨지고 기억에 남는 것은 ‘기형’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살아남는 것 같다"고 러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도를 따라갔을 때, 일상에서 '눈에 걸리는', '평범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문우의 기조에도 잘 맞는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라머리 앤** 저는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펼쳐졌어요.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밖을 내다보며 그림을 그렸다고 여기서 이야기가 되는데, 그림의 이미지들이 이어지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랑의 '슬프게 화가 난다'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생각났어요. '나는 방 안에서 멍하니 꽃과 나무를 그렸다. 슬프지만 생동하는 것들을 그렸다'는 윙앙스의 가사가 있는데, 그것이 특히 떠올랐던 시였어요.

**포슬** 이제 편집장 서문을 이야기해보도록 할텐데요. 편집장 서문을 쓸 때는 항상 이전 대 편집장 분들이 쓰셨던 서문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밑그림을 미리 그려주신 느낌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쓰고 어떤 톤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지점을 참고하면서 쓰게 됩니다.

**능** 저희가 메인 기획이 있고, 문우의 눈도 있지만, 결국 편집위원들이 쓰는 주제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으려 하거든요.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게 가장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가 있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글들을 정말 매끄럽게 하나로 잘 이어 주셔서, 처음에 딱 문우를 펼쳐 들었을 때, 문우가 이 호에서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독자분들께서 잘 이해할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 2. 메인 기획

### 2-1. 농, 포슬\_경사로와 줌: 2021학년 학내 장애정치 방문하기

**농** 저희가 이것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은, 생각보다 저희학교에는 장애학우에 대한 지원이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환경에서 이들을 크게 배려하고 있지 않다, 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거친 목적을 두고 글을 쓰기에는 불가능했던 글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비대면 환경과 비대면 환경이 아니었을 때 그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조명하는 글을 쓰려고 했어요. 조금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연세대학교가 잘하고 있는 면을 마냥 칭찬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잘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런 균형을 잡으려고 했어요. 간단히 접근하기에는 생각보다 조금 더 복잡한 의제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전달이 됐으려나요.

**보라머리 앤** 그 흐름이 정말 이해가 잘 됐어요. 일단, 단순히 '더 좋아졌다', '더 나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도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면이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 공감이 갔구요. 그리고 글이 잘 알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글들은 당위적으로 가기가 쉽잖아요. 사실 제가 학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맨 마지막에 비대면 상황에서 장애학생들과 함께 만나는 기회를 통해서 관계맺기 연습을 해야한다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 말에 동의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글을 읽는 것만으로 '나는 차별적인 인간이 아니야'라고 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많은 실수와 일종의 연습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족한 점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슬** 이렇게 현안에 대한 글을 쓰면 문제제기만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소 간의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 글이었습니다.

### 2-2. 이일\_장애의 재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까

**포슬** 이 글은 실제 삶의 모습과 우리가 '당위적으로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들 간의 간극을 짚고 그 사이에 미디어가 행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를 이야기를 하는 글이에요. 그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미디어가 어떤 전형성을 이야기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비단 장애 뿐 아니라 빈곤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도, 여성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소수자를 재현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전형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의 질문도 떠오르네요. 전형성이라는게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디어가 무언가를 재현할 때, 특히 서사를 통해 재현한다면, 그 사이에 있는 무언가가, 빈틈에 있는 무언가를 집어내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와중에 발생하는 수많은 편견이라든지, 여러가지 권력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비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아지는 지점이었어요.

**보라머리 앤** 전형성과 개별성 사이에서 어떻게 인물을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창작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사를 만드는 데 있어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주인공이 아닌 인물의 서사를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주인공에 비해서 주변인물들은 서사가 적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적으면 그만큼 단편적인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수자를 그 자리에 넣어서 주인공의 각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재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소수자를 제대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공 격으로 등장시켜서 입



체화해야 하는 걸까. 전형적인 인물상이라는게 아예 우리 주변에 없는 거는 아니잖아 요. 그렇다면 전형성이라는 성질 자체를 기피해야 하는 건지, 그런 고민이 자주 들더라구요.

**능** 모든 창작자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본 드라마 중에 정말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주인공인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네 인생 같아서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무언가를 탈피하는 노력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인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 지오\_이 길고 긴 터널 끝에는 광활한 우주**

**능** 저는 이 기획 안에서 지오가 ‘돌봄’의 이야기를 꺼내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장애에 대해 쓰면 ‘연대해야 한다’, ‘돌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끝을 맺곤 하는데, 그 돌봄이 정확히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지까지는 상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글을 써주면서 그걸 확실하게 상상할 수 있게 해준, 그리고 확실하게 고민할 수 있게 해준 글이어서 정말 가치가 있었습니다.

**보라머리 앤** 인간이 상호의존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은 분명 맞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어 줄게”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상대방은 제 도움을 오히려 부담으로 느끼면서 “너의 그 도움이 나에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그게 고민이에요.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천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에도 정말 동의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고는 생각해요. 돌봄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할 수 있는 삶. 그런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 문우의 눈**

**3-1. 엠\_줄세우기의 배신**

**포슬** 이 기사에서는 미래캠퍼스와 신촌캠퍼스에 대한 논쟁 아닌 논쟁들로 논의의 물꼬를 트고 있어요. 사실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려는 주제 자체는 능력주의와 학벌주의라는 거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물꼬를 연세대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트는 흐름 자체가 큰 이야기를 저희가 살고 있는 삶의 층위로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라머리 앤** 이 사건이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에브리타임을 과감하게 지워버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었어요. 분교와 본교를 나누는 것은 학교의 돈벌이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학생이 왜 싸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기도 했었고. 다만 살짝 아쉬웠던 건,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어렵겠조? 능력주의를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 것인가.

**검은** 저희가 속한 대학일수록 능력주의나 경쟁 사회를 옹호한다든지,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둔 언행을 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이 기사 덕분에 그런 환경에 대해 되새길 수 있었어요.

**3-2. 아부\_백래시를 먹고 자라는**

**능** 어떻게 보면, 백래시나 페미니즘에 관련된 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부도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고민한 점이, ‘이때까지 나왔던 많은 글과 어떻게 차별점을 둘 수 있을까’ 라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별성을 갖추든 갖추지 않든 간에, 이런 이야기를 질릴 때까지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페미니즘에 관한, 백래시에 관한 더 많은 글과 많은 생각과 많은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라머리 앤** 이 글을 읽으면서 서울 시장이 바뀌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그 결과를 보면서 첫번째로 든 생각이, ‘와 백래시 정말 심해지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게 정말 여지없이 실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정치권의 양상을 보았을 때도 그렇고요. 저 스스로도 이런 백래시를 마주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맞는지 모르고, 감정이입만 하는 제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이 반가웠던 것 같아요.

언론의 커뮤니티발 보도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를 짚어주셨던 부분이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한겨레에서 젠더데스크라는 것을 설치해서 부적절한 표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 언론사마다 시민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어 (언론을) 고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3-3. 세월\_레디메이드, 당신의 취미

**포슬** 문우 기사들 중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론이 어느 시점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의 어떤 깊이로 그 글 속에서 스며 있어야 되는가를 판단하는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세월의 기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취미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우리가 즐기는 내밀하고,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압력 속에서 형성되고, 그 취미를 즐기는 것이 어떤 것들을 되먹임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론을 참 능숙하게 엮어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미있게 읽었던 기사였습니다.

**검은**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다양한 취미를 만들어 가려는 시도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과 어떤 이유에서든 즐기지 않는 사람들 간의 구분선이 생기고, 공감미 되지

않는 상황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런 글이 나오게 반가웠어요.

**보라머리 앤** ‘레디메이드 취미’라는 제목을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취미라는 것의 속성 자체가 사회적인 수박에 없다는 부분이 참 재밌었어요.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처음 서론 부분에서 집단적이고 과시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취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적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다가 마지막에 똑하고 끊긴 점이었어요. 취미가 유행이나 자기계발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3-4. 단\_디지털 시대와 다중 정체성, 살아가는 우리

**능** 아주 재미있는 기사였어요. 당시 한창 디지털 성범죄 같은 현안이 있기도 했고. SNS하는 사람들, ‘부계’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연결고리 덕분에 입입해서 보기 좋았습니다. 단이 글을 쓰며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론부에 나름의 대안도 제시했기 때문에 알찰 수 있었던 글이었어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뒤의 깊은 논의로 갈수록 글의 방향이 독자의 기대와 멀어지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다중정체성을 캐릭터나 미디어의 모습으로 정의하는데, 뒤로 가면 범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서론부에서 조금 언질을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라머리 앤** 저는 오히려 다중정체성의 위험성에 동의했어요. 온라인 상에서 내가 내가 아닌 척 한들,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새로운 나가 된 듯한 기분도 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한 점에 대해 더 고민을 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 3-5. 이지\_중국은 왜 저럴까: 중화민족주의의 역사와 현재

**포슬** 제가 제일 재밌게, 그리고 씩씩하게 읽었던 부분이, 티벳과 위구르 관련된 부분이었던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민족주의를 이야기 하고, 그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하지만 이면에는 실제적인 탄압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집단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소수민족 탄압을 혐오나 배척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그들을 반대로 타자화 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접근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것을 이 지의 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보라머리 앤** 중국이 이상하리만치 애국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일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자신들만의 정치 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장 위주의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저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관련해서) 세계의 흐름에 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 권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과도한 애국심을 강요하면서 다양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농** 제일 마지막의 글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역사는 사실 온전한 한민족의 것이 아니고, 흘러 가면 많은 민족이 섞여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사를 누구의 것이라 하기 힘들다. 상대가 억지 주장을 했을 때도, 결국 문제의 해결은 차가운 머리다.’ 라는 요지의 이야기가 재미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중국에 관련된 소식만 들려오면 무조건 부정적이잖아요, 그럴수록 머리를 식히고 중국이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은** 다소 이전에 완성된 글이지만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잖아요. 시의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글 쓰신 게 너무 멋집니다.

## 4. 활동보고

### 4-1. 검은, 단, 농\_학교에서 밀어주는 한국어학당, 세계에서 밀려나는 강사

**포슬** 해당 사안에 대해 따로 팀을 꾸려서 취재를 하고, 기자 회견이라든지 간담회에 가서 속기를 따는 등의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라는 공간에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고, 그 구성원들 간에 발생하는 부조리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발 붙이고 있는 이곳에 많은 이슈들이 엮여 있고, 그것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은 활동이었습니다.

**검은** 제가 국문과라 그런지 한국어학당 강사 노조 문제가 조금 더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한국어, 혹은 한국어 교육을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또 저한테는 정말 몇 안 되는 연대 활동이었고, 그분들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하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경험 자체가 정말 소중한거 같습니다.

## 5. 독자모임 소감

**보라머리 앤** 제가 문우를 짝사랑하고 있거든요. (웃음) 그 이유는 글들이 정말 좋기 때문이에요. 글에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많이 보이고, 그것들을 언어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은** 저는 독자모임이 처음이어서, 신나고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다음에도 시간이 되면 참여하고 싶고, 다음 호에는 꼭 기사를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 쓰신 편집위원분들께 고생 많으셨고 멋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끔 신촌캠퍼스 도서관을 갈 때 책이 줄어든 것은 종종 봤는데, 독자의 감상을 들을 수는 없어서 아쉬웠어요. 이렇



게 소중한 독자 분을 모시고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소중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능** 독자분께서 너무나 소중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요. 이런 피드백을 들으면 글을 쓸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독자모임을 필참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그 정도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보라머리 앤** 정말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슬** 문우에 실을 글을 쓸 때마다 간사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어요. 어차피 학내언론은 늘 위기기 때문에 읽는 사람도 많지 않고, 저도 필명 걸고 쓰는데, 조금 덜 열심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간사한 마음이 늘 불쑥불쑥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해주는 독자분을 두고, 그런 검은 마음으로 글을 쓰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 필요한 말씀 해주셔서 또 한 분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았네요.



# 편집후기

아자

마감에 쫓긴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군요... 그래도 메인기획 같은 조, 루 님과 아부 님과 함께여서 즐거웠어요. <문우의 눈>에 실으려고 기획했던 글은 결국 끝내지 못했네요. 아쉬워요. 메인기획 글을 적으며, 이제는 정말 뉴스 기사랑 친해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게으르게 남의 의견에 편승하며 지내왔다는 것을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문우가 있어 저의 대학교 첫 학기가 순탄했어요. 다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왠지 다들 기겁하실 것 같지만 문우 사람들은 모두 귀여운 면이 좀 있으신 듯해요.^ 추가로, 베이비 편집위원 대우가 아주 달콤했어요...

## 단(丹)

문우에서 맞는 두 번째 마감입니다. 익숙한 게 무서운 거라더니, 늦장 부리다가 허겁지겁 마무리하는 느낌도 들지만, 이렇게라도 마침표를 찍는 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돌아보면 아쉬운 글을 또다시 남겼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문우 사람들과 보낸 하루하루는 충만했다고 생각해요. 예전보다 나아진 점이라고는 제 부족함을 되돌아보려는 시도, 그리고 오늘의 나를 성장시키겠다는 마음가짐 정도겠네요. 이 또한 여러분의 응원과 애정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6호 속에서 소중한 시간을 주고받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내일을 만나길 바라며, 편집 후기 마무리하겠습니다.

## 루

수료생 신분인데도 뭉개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아직 한 학기 활동이 남았지만 다음 호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이 졸업 전에 집필하는 마지막 문우네요. 사실 한참 전부터 문우를 떠날 마음의 준비를 슬슬 하고 있었는데, 다시 대면 만남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편집위원들과도 생각보다 많이 가까워져버려서... 이별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문우 없는 인생을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 막막하네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4년간 최고학번 자리를 지켜온 사람으로서, 충분히 좋은 선배가 아닌 것 같아 항상 미안했고, 그럼에도 모두 다정하게 대해주어 항상 고마웠습니다 탈정치화로 인한 학생사회의 위기니, 코로나로 인한 대학 일상의 붕괴니 해도 계속 문우가 잘 살아남아 온 비결은 문우 편집위원들이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열심히 해주는 덕분이 아닐까?! 앞으로의 문우가 걸어나갈 길을 응원합니다. 모두들 안녕!♥

## 봉화

부족한 저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폐만 끼친 것 같아 죄송하네요. 대학교에 들어오고 적응하는 게 힘들었는데, 문우에 들어와서 처음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평소엔 생각도 못 해본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나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아는 것도, 알고 싶은 것도 많아졌어요. 앞으로 민폐 부원(ㅎㅎ...)이 될지 모르지만 가능한 문우에 오래 있고 싶네요. 매번 저의 세상을 넓혀주는 소중한 문우 부원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

약 반 년 동안 문우에서 보낸 시간들은 진정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66호 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족했던 점이 유독 많았던 거 같아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이제 문우에서의 첫 번째 글을 보냈으니 더 이상 수습이 아니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 60 -

“

## 유연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첫 번째로 쓰고 싶습니다. 반년간 문우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았고 저의 무지와 한계와 불성실을 탓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꼼꼼한 피드백을 읽으며 정말 언젠가 내 스스로 이런 정연한 글을 쓸 수 있을까, 하고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대면하고도 도망치지 않고 끝내 편집위원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점, 그것 하나만은 자랑스러워해도 되겠지요?

곧 새내기 후배라는 미명 하에 용서받을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전까지 저의 무덤을 최선을 다해 알아보겠어요. 염치 없지만, 그 과정을 오래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정하고 선량하고 정다운 우리 문우 사람들, 마음 깊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배 졸업하지 마요, 그냥 다 졸업하지 마요! 평생 문우에 있어요!

”

매번 그런 것 같지만.. 이번에도 여지없이 실패한(ㅎㅎ) 글을 쓰고야 말았습니다. 용케도 그만두지 않고  
 마감을 맞았네요. 문우에서 꽤나 여러 번의 마감을 거쳐왔지만, 편집후기를 쓸 때마다 이번 글이 왜 부족  
 한지, 왜 내보이고 싶지 않은지만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글에서는 저의 짐을  
 끝까지 지지 못하고 독자분들께 던져버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 뿐입니  
 다. 언젠가는 성장을 해야 할텐데, 그  
 게 잘 안되네요.

**포슬**

66호에는 사랑스러운 문우 편집위원 여  
 러분을 자주 만날 수 있어 좋았어요. 너  
 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심지어 여럿에게는 처음 보는 부족한 사람일텐데 늘 환대해 주  
 셔서 감사합니다. 어쩐지 문우방 지박령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받아줘서 출몰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늘 감사드려요. 사랑합니다!

**경이**

불안을 비롯한 여러 감정들과 마주하며 글들을 쓰고 마친 것 같습  
 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절망적이고 슬픈 소식들에 대한 불안, 글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가에 대한 걱정, 글을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 ... 한참이나 부족한 상태로 마침표를 찍고 문우 편집위  
 원분들과 독자분들께 글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럼에  
 도 끊임없이 피드백을 남겨주시고 읽어주신 (그리고 읽어주실) 문  
 편, 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편집장으로서 부족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만 많은 조언과  
 따뜻한 말씀을 주시고, 각자 힘들고 바쁜 상황에도 마감을 끝내주  
 신 문우편집위원분들께... 다시 한 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있을  
 수 있는 한 오래 문우에 남아 있을게요.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방학 일정이 빠듯하여 많이 불안했는데 같은 조인 루님과  
 아자님, 그리고 다른 문우 부원분들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비록  
 성실하게 고민해서 좋은 글을 쓰겠다는 1년 전 편집 후기 속 결심은 이루지 못  
 했지만 언젠가 남들에게 슬쩍 보여줄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도록 차근차근 열  
 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상도 못했던 대면 활동을 하며 문우 분들께  
 많이 배웠고 부족한 저를 자주 돌아보며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항  
 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야부**





